금수강산

4

주체103(2014)
루계 제296호 월간

 ISSN 1727—9062

2. 태양의 자애론 미소
이 땅에 넘쳐 흐른다
끝없는 사랑의 축복을 안고서
우리 민족 꽃핀다
(후렴)

3. 만민이 받드는 태양
누리에 불멸하여라
그 해빛아래서 붉은기 날리며
부강조선 떨친다
(후렴)

차 례

로동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50(1961). 4)

인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조국

4월이다. 봄의 훈향속에 갖가지 꽃들이 피여나는 이해의 네번째달이다.

이달이 오면 조국인민들은 여느때보다 더 평양의 한 초가집을 끊임없이 찾는다. 그곳은 주체1(19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이다.

그곳에서 인민들은 자기들의 어제와 오늘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놓고보면 새 나라, 새 제도, 새 생활… 조국의 모든것이 수령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

지금으로부터 한세기전 조선민족은 외세에 나라를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하직하고 타향만리에서 피눈물을 뿌리던 식민지민족이였다. 강해지고 번영해지려는 인민의 꿈은 그 세월에도 있었지만 옳바른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에 한 민족이 외세의 총칼과 억압속에 억눌려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한 민족이 비로소 삶의 희망을 간직하게 된것은 수령님, 그이를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때부터였다.

일찌기 열네살되시던 해에 나라찾을 싸움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ㅌ. ㄷ》(타도제국주

의동맹의 략칭)의 기치높이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래일에 대한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인민의 아들딸들을 총대로 무장시켜 일제와의 대결전을 걸음마다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렇게 20성상, 그 나날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그이께서는 기어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실로 새로운 사상도 그이께서 창시하신것이고 빼앗겼던 나라도 그이께서 찾아주신것이며 빛을 잃었던 민족의 존엄도 그이께서 찾아주신것이다. 그렇게 찾은 조국땅우에 그이께서는 당도 인민을 위한 당, 군대도 인민을 위한 군대, 정권도 인민을 위한 정권을 세워주시였다. 그에 의해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손에 쥔 나라의 주인이 되여 인민제일주의가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아래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였다. 지난날 착취의 대상으로 피땀을 빨리워야만 했던 인민이 오늘은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세금없는 나라, 무료로 공부하는 나라 그리고 무상으로 치료받는 나라에서 복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돌이켜보면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기나긴 반세기이상 제국주의강적과 맞서 인민의 운명을 지켜야 했고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끈질긴 제재책동속에서 인민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켜야 하였다.

하다면 수령님의 마음속진정은 무엇이였는가.

그이께서는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바로 인민이였다.

그이께서는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였다.

그 인민속에는 지원(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의 사상, 3대각오(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동지획득의 사상,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이의 아버님이 계시였고 나라위한 대장부의 큰뜻에 자신의 한생을 바쳐 나래를 달아주신 그이의 어머님이 계시였다. 그리고 나라찾는 싸움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한 전우들이 있었고 해방후 건국사업에 온넋을 바친 지식인들이 있었다. 그 인민은 1950년대 전화의 나날 미제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신심에 넘쳐있던 락원의 로동계급이였고 전후 자기 수령과 포전에서 무릎을 맞대고 농사문제를 의논하던 농민들이였다.

인민, 그속에 그이의 한생이 있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로동자의 집을 찾으시면 쌀독과 가마뚜껑을 먼저 열어보시며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아이들을 만나시면 책가방의 교과서와 연필 지어 점심밥곽까지 살펴보시고… 언제인가는 다섯손가락을 하나, 하나 꼽으시며 인민을 위해 당도 정권도 군대도 일군들도 있고 수상도 필요한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그이이시였다.

이런 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사회전반의 이름에도 인민이란 명칭을 수없이 새겨주시였다. 새로 창건된 국가의 이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방후 처음으로 창립된 병원의 이름도 평양시제1인민병원, 군대도 조선인민군, 나라의 법에도 인민경제계획법, 수도의 명당자리에 일떠세우도록 하신 도서관의 이름도 인민대학습당…

바로 그렇게 마련된 인민의 터전에서 인민의 행복이 년년이 꽃펴났다.

새집들이한 교원, 연구사들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 학생소년들

비록 그이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20년,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두번이나 흘렀지만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국에서는 그 어떤 모진 시련속에서도 인민중시, 인민제일의 사상이 굳건히 이어지고 인민이 더 잘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오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 더불어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더 활짝 꽃펴나고있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두해전 6월 평양의 창전거리에 펼쳐진 새집들이화폭을 추억속에 소중히 새겨안고있다.

수도의 중심부에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창전거리는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옆에 끼고 밤이면 황홀한 불장식을 펼쳐놓아 이곳을 찾는

물놀이장에서 즐기는 근로자들

마식령스키장의 일부

사람들 누구나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거기에 집집마다에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고 살림집들과 조화롭게 자리잡은 인민극장이며 해맞이식당 등 각종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저마끔 현대미와 특색을 보이고있다.

그런 거리의 살림집에 돈 한푼 내지 않고 입사한 사람들은 그대로 건설자, 방직공, 도로관리공 등 평범한 인민이였다.

둘러보면 이러한 모습은 창전거리에서만 있은것이 아니다.

은하과학자거리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가보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새집을 받은 과학자, 교육자들이 행복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고 최신의료설비들로 꾸려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등에 가면 무상치료를 받는 인민들이 고마움의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림승마구락부에서는 부유계층의 운동으로 흔히 불리우는 승마가 근로인민의 대중운동이 되여 사람마다 활기에 넘쳐있고 마식령스키장에서는 현대적인 호텔과 숙소, 스키주로마다에 인민들의 희열이 흐르고있다.

정녕 이것은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 제일 좋은 문명을 안겨주시려던 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이였다. 그 념원을 꽃피우시려 장군님께서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태양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인민은 자기의 모든 꿈을 이루어가고있다. 태양복속에 인민의 행복한 삶은 더욱 꽃펴나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활기에 넘친 승마운동

일 화

헌신의 하루

주체81(1992)년 5월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개성지구를 현지지도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떠나시였다.

달리는 차안에서 수행일군은 초조감을 누르지 못하고 자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수령님께서 아침일찌기 떠나자고 하시여 새벽에 출발하다보니 그이께서 아직 아침식사도 하지 못하시였던것이다.

시계바늘이 7시를 가리킬무렵 승용차는 개성을 얼마 앞둔 금천읍을 지나고있었다.

이제 몇분만 더 가면 개성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멈춰서는것이였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뒤차에 타고있던 수행일군에게 여기서 잠시 쉬면서 아침식사를 하고 떠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은 당황해졌다.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 날씨도 쌀쌀하고 인가도 없는 도로옆에서 수령님께서 어떻게 식사를 하신단 말인가. 더우기 개성시 현지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났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보신듯 밥걱정은 마오, 내가 어제저녁에 곽밥을 준비시켰는데 그거면 되오, 그러면 개성시 인민들에게 페를 끼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해서 좋소라고 하시며 준비한 곽밥을 하나씩 나누어주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수령님께서는 인적없는 도로옆에서 아침식사를 하게 되시였다.

도중식사로 준비한 곽밥에는 밥과 함께 나물채 몇가지가 담겨있었을뿐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곽밥을 펴놓으시고 보온병의 물을 따르시며 검소한 아침식사를 하시였다.

수행일군들은 80고령에 이르신 수령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하여 가슴이 저려옴을 금할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개성시에 도착하신 수령님께서는 고려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만월대와 선죽교, 표충비, 고려태조(왕건)왕릉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력사문화유적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그리고 오후시간에는 개성방직공장과 박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시고 오후 5시가 다되여서야 평양을 향해 출발하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개성까지 1 100여리의 먼길을 차로 다녀오시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현지지도를 마치고 평양에 돌아오신 수령님 집무실의 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질줄 몰랐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긴 국가령도자들이 많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젊은 사람들도 미처 따라서기 힘든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러한 위인은 없을것입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과 로고의 한생이였습니다.》

수령님과 인민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 인민의 리상과 문명이 날로 꽃펴나는것은 오늘 조국의 현실이다.

불과 몇년전에 인민극장, 릉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쎈터, 류경원, 창전거리살림집 등이 일떠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특색있게 건설되고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개건되였다.

대동강기슭의 문수지구에는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으며 평양시의 교외에 미림승마구락부가 꾸려지고 마식령지구에는 대규모의 스키장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강원도의 세포등판에서는 조국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개간과 건설사업이 벌어지고 청천강줄기를 따라 계단식발전소들이 건설되고있다.

나날이 더욱 풍성하게 무르익는 이 땅의 번영의 열매들을 보며 행복감에 넘쳐있는 조국인민들이다.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더 잘살게 하시려는것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생전의 뜻이였다.

우리의 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살수 있는 사회, 누구나 진보적이며 건전한 사상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다같이 몸바쳐 일하는 사회, 온 나라가 하나의 큰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단합된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

천리마대고조시기 어느 한 대회장에서 하신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바라온 모든 행복, 부강번영하는 조국에 대한 념원이 어리여있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새로 작성한 일용잡화주문목록를 받으시였다. 한장, 한장 번져가시며 구체적으로 보시던 그이께서는 실지 써야 할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하시며 사람들을 여러명 불러오게 하시였다. 하여 수령님의 집무실로는 남성들과 가정부인들, 로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평범한 사람들이 오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이 목록을 보고 일상생활에서나 가정에서 필요한 품종들이 빠진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있으면 기탄없이 제기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도 머리만 기웃거릴뿐 한가지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그러는 사람들의 궁냥을 틔워주시고 자신께서 생각하시였던것을 알려도 주시면서 열세가지의 품종을 더 찾아내시여 목록에 적어넣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처음 제기되였던 193가지의 목록이 206가지로 보충되였다.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시려 늘 마음쓰시며 아침에 비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깊은 밤 눈내려도 인민을 찾으시였던 분이 바로 인민들모두가 《우리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던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그 나날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펄에 빠진 승용차를 한치, 한치 미시며 북방의 농촌마을을 찾으신 이야기며 한낮이 기울 때까지 여러 농장포전을 돌아보시고 때늦게 점심식사를 드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인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이 땅우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이런 날과 달들이 모여 수령님의 한평생을 이루고있는것이다.

57만 8 000여㎞!

이것은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 나라의 곳곳을 찾고 찾으신 현지지도의 총연장거리이다.

지구를 무려 열네바퀴반이나 돈것과 맞먹는 그 머나먼 길을 수령님께서는 오로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으시였다.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리상사회의 터전을 마련하시려고 수령님께서 쉬임없이 이어가신 사랑의 그 길우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일떠섰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진정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과 업적을 인민은 세월이 가도 잊지 않고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1927년 2월 길림의 교포사회는 전례없는 환영일색으로 들끓었다. 상해림시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독립운동의 원로 안창호선생이 베이징을 거쳐 길림에 도착하였던것이다.

길림의 교포들은 안창호를 국가수반 못지 않게 성대히 영접하였다. 우리도 《거국가》를 부르며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거국가》란 안창호가 외국으로 망명할 때 조국을 하직하면서 지은 노래이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라는 구절로 시작되여 《나 간다고 설워 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라는 구절로 끝나는 이 《거국가》는 《한일합병》후 청년학생들속에서 특별히 애창되였다. 망명가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 한때는 《망명자의 노래》라고도 하였다.

조선사람들은 《거국가》를 사랑하듯이 《거국가》의 창작가인 안창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숭배하였다. 안창호의 인품과 실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통령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표현은 크게 과장된것이 아니였다. 림시정부를 시답지 않게 보는 독립군단체의 지도자들까지도 안창호개인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선배》라고 하면서 떠받들었다.

안창호의 금새를 잘 알고있는 이등박문이 한때 그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일본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도산(안창호의 호)내각을 세워주겠다는 흥정까지 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평안남도 강서땅이 지금은 천리마의 발원지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낳은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고있지만 왜정시대에는 도산 안창호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유명하였다. 안창호가 강서태생이였기때문에 서선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자기네 동향인이라고 자랑하였다.

안창호는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운것은 민족의 자질이 낮은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립협회, 신민회, 청년학우회, 대한인국민총회, 흥사단과 같은 독립운동단체들도 조직하고 점진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과 같은 교육문화기관들도 설립하였으며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 계몽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독립운동의 원로들속에 남강 리승훈이라는 이름난 교육자가 있다. 리승훈이라고 하면 누구나 오산학교부터 먼저 생각하게 된다.

오산학교는 그가 설립한 학교이고 그의 개인자금에 의해 운영된 이름난 사립학교였다.

리승훈은 후대교육에 바친 공적으로 하여 륭희황제의 접견까지 받은 인물이다. 400년동안 서선지방의 평민들중에서 황제를 알현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는데 리승훈이 그 전례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왕을 만나보았으니 그의 명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것이다.

이처럼 고명하고 인망높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리승훈도 한때는 돈벌이를 해볼 야심을 품고 장돌뱅이가 되여 유기장사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5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평양에 왔다가 교육을 통한 실력배양이 독립구국의 기초로 된다는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는 거기에 감탄하여 상투를 자르고 고향에 돌아와 교육운동을 시작하였다. 애국애족의 일념에 넘치는 안창호의 웅변술이 대무역상의 인생관에 새로운 돛을 달아준것이다.

이것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안창호의 영향력과 감화력을 증시해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국의 신문들은 안창호의 길림도착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청년학생들은 그가 머무르고있는 삼풍려관에 찾아가서 길림의 교포학생들을 위해 강연을 해줄것을 간청하였다. 독립운동자들도 그의 숙소에 연줄연줄 나타나 강연에 출연해달라고 초청하였다.

안창호는 그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였다.

독립운동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무날 어디에서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을 한다는 소문을 돌리고 상부가, 차루가, 통천가, 하남가, 북대가, 우마항가를 비롯한 시내 여러 거리들에 광고도 큼직큼직하게 써붙이였다.

그 광고를 본 길림의 교포들은 모두 들뜨고 흥분되여 서로 만나기만 하면 《도산선생이 오셨다지요?》 하는 말로 인사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강연전날밤에는 나도 오동진과 함께 안창호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이역의 하늘밑에서 장장 17년만에 대성학교시절의 은사를 만난 송암 오동진의 감회는 참으로 류다르고 절절한것이였다. 오동진은 대성학교 사범과에 입학할 때 안창호가 인물심사를 어떻게 하였고 입학후에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주었는가에 대하여 추억하였다. 나중에는 도산선생이 지은 청년학도가까지 부르며 그가 후대들의 독립정신을 계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회고하였다. 그는 특히 안창호의 웅변술을 두고 실감있는 회억을 많이 하였다.

안창호의 웅변술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여러번 말씀하였다. 나는 만경대에 있을 때 벌써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창호의 독립운동이 웅변으로부터 시작되였고 웅변을 떠나서는 그의 명성도 론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안창호가 연설을 하면 려염집아낙네들까지도 그 류창한 웅변술과 리상향론에 교화되여 가락지와 비녀를 뽑아 헌금을 한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연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가? 안창호와 같은 큰 인물이 미주나 상해가 아니라 여기 길림에 노상 와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나라가 독립된 다음 나에게 대통령을 선거할 권리를 준다면 나는 그 첫번째로 안창호선생을 추대할것이다.》

이것은 그날밤 오동진이 나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은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에 대한 나의 기대와 호기심에 부채질을 해주었다.

안창호는 조양문밖에 있는 대동공창에서 의사 라석주의 추도회를 열고 겸하여 강연도 하였다.

추도회에 참가하려고 모여온 3부의 대표들과 시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 유지들, 청년학생들은 거의다 강연회장에 모이였다. 바닥자리는 다 차고 모자라 대부분의 청중은 바람벽앞에 서서 강연을 듣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날 안창호는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소문처럼 연설을 잘하였다. 그의 류창한 언변은 처음부터 군중의 찬탄을 자아냈다.

안창호가 동서고금의 력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섞어가며 조선민족의 출로에 대한 주장을 력설할 때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연방 터져올랐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였다.

안창호는 강연에서 《민족인격완성론》과 리상향론을 풀어나갔다. 그의 《민족인격완성론》은 《자아인격혁신론》과 《민족경제확립운동론》의 두가지 내용으로 되여있었다.

《자아인격혁신론》이란 우리 민족이 후진국으로서 왜놈들의 식민지가 된것은 인격과 수양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것만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화목해지도록 각자가 자기 인격을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안창호의 주장에는 어딘가 《자아완성론》에서 표현된 똘스또이의 사고방식이나 자기자신을 개조하고 단련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를 얻을수 없다고 본 간디의 견해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의 징조가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던 때였다. 극도로 파쑈화된 제국주의가 대두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총칼과 올가미로 참혹하게 교살하고있었다.

소부르죠아지식인들은 철갑으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위력앞에서 전률하였다. 이런 시대적분위기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정신적도피처가 바로 무저항주의였다. 무저항주의는 혁명적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공세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찾아가는 마지막안식처였다. 반혁명에 맞설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결국은 무저항을 부르짖게 되는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

오늘 조국인민들은 원대한 포부와 희망에 넘쳐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국인민들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도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주체사상은 력사발전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 근로대중의 자주성실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나게 되였습니다.

진정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상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야말로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나이제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신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자주시대가 펼쳐지고 선군의 진리가 명시되였다.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류자주위업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101(2012)년 4월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의 주최로 인터네트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7개 나라와 국제기구 인사들, 조선친선협회 성원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은 가장 과학적인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창시한데 있다. 력사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주체사상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오늘은 전세계에로 급속히 파급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게 하는 조선의 선군정치도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귀중한 재부인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길이 빛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걸출한 위인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시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또한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였다.

인류에게 자주와 진보의 등불을 안겨주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천세만세 길이 빛날것이다.

이밖에도 이딸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 헤르모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사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보로 된다고 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은 현실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은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려 남아프리카의 진보와 번영,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한것을 비롯하여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1세기 인류의 위대한 지도사상,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이라고 격찬하였다.

윤홍기

쌓으신 업적 그토록 크기에

천출위인을 모시여 강군이 있고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존엄이 있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천출위인을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셨던 그날의 환희와 감격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당과 국가의 중임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과 함께 국방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정치와 군사를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무적의 총대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있다는 선군의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전선시찰로 인민군대를 조국수호의 믿음직한 근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고 온 나라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불패의 보루로 다지시였다.

지난 세기말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며 부당한 《핵사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그때 조국땅에 울려퍼진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라는 폭탄같은 선언이 온 지구를 들었다놓았다.

주체조선의 의지를 세계앞에 보여준 력사적사변앞에 적들은 끝내 머리를 숙이였다. 미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과 그것을 성실히 리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전례없는 담보서한까지 발표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시련의 고비들이 앞을 가로막는 나날들에 철령과 오성산, 대덕산과 1211고지, 351고지를 비롯한 조국의 산발들과 고지마다에 조국수호의 자욱자욱을 수없이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로 하여 온 나라에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력사적전환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펼쳐졌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기와 《광명성—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 두차례의 핵시험에서의 성공, 온 나라에 타번진 CNC화의 열풍,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경공업기지들과 과수농장, 목장, 양어장,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진 문화후생시설들…

참으로 지나온 그 나날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념원과 리상이 하나둘 현실화되여가던 뜻깊고 격동적인 나날들이였다.

이 나날에 온 민족이 가슴뿌듯이 느낀것은 천출위인의 비범한 자질과 품격, 특출한 정치실력이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들에서 채택된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온 겨레에게 안겨준 통일의 환희와 기쁨 또한 컸다.

언제인가 평양에 찾아온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신 뜻깊은 자리에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일심단결이고 둘째가 군력이라고 하시면서 군력이 있어야 외국과의 관계를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세에 롱락당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진정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시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이 낳은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주체101(2012)년 4월 조국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였다.

이것은 조국과 겨레를 위해 바치신 천출위인의 애국헌신의 한생과 쌓으신 업적에 대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분출이며 그이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강성국가의 찬란한 래일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천만군민의 굳센 의지의 반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고귀한 업적은 온 겨레를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선군과 래일

군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고 국제무대에서 정치적영향력도 행사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오늘 조국땅에 펼쳐지는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위력과 애국애족적성격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으로 되고있다.

조국에서 일어나는 사변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철리로 새겨안게 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울려온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습니다.》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우리 인민 아니 온 겨레가 조국의 력사를 더듬어보았다.

지난날 나라없던 그 시절 상가집 개만도 못했던 인민, 일제의 군화발밑에 신음하며 나라를 찾아줄 위인을 찾고찾던 민족이였다.

그러던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땅에서 해방의 만세소리를 높이 터치였고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신 조국땅우에 승리의 만세소리를 더 높이 울리였다.

그것은 총대로 조국을 찾아주고 지켜주신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선군사상에 대한 인민의 드팀없는 신뢰의 분출이였다.

선군의 력사는 조국땅에 줄기차게 흘렀다.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조선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보검으로 간주하시고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일관된 그이의 투철한 선군정치가 있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전쟁책동은 걸음마다 산산이 짓부서졌고 조국의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조국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라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였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인 발사, 온 나라에 타번진 CNC화의 열풍,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의 건설…

이것은 선군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였다.

선군조선의 계승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고있다.

언제나 선군길에 장군님과 함께 계시며 백두산위인들의 선군사상을 심장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주체101(2012)년 새해 정초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시였다.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부대를 찾으신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고패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는 것이였다.

자그마한 발동선을 타시고 날바다를 헤치시며 서남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를 찾으시던 원수님의 령장의 기질과 무비의 배짱은 그대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을 공포와 불안속에 몰아넣었다.

은하과학자거리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 온 나라 곳곳에서 흘러넘치는 웃음과 노래소리는 선군승리의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오늘 조국땅에 펼쳐지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보며 군대와 인민은 선군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보람을 한껏 느끼고있다.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선군조국의 래일은 더 밝고 창창하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

줄줄이 뻗어내린 마식령스키주로들에서 희열과 랑만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가 한껏 터져나오고있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고 사람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건설된 스키봉사 및 숙소건물, 초, 중급주로휴식장, 그 수에 있어서나 총연장길이에 있어서 세계적인 스키주로, 그 어디에 가보아도 최상급이다.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반영된 특색있는 마식령호텔과 대화봉정점을 비롯한 여러개소에 자리잡은 휴식장들, 눈포용저수지들, 직승기착륙장, 수십동의 종업원살림집 및 편의봉사건물, 삭도조종실 등은 또 얼마나 훌륭한가.

말도 령을 넘기 힘들어 쉬여간다는 마식령의 천연산지에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스키장이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

하다면 마식령스키장을 문명국상징의 하나로 일떠세워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기적을 창조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다름아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다. 그들의 위훈은 마식령스키장에만 깃들어있지 않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세계적수준의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문수기능회복원 그리고 1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병원, 유치원 등 공공건물들과 아동공원, 편의봉사시설들을 다 갖춘 은하과학자거리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 지난해 조국땅에 건설된 건축물들에는 인민군군인들의 애국의 마음이 깃들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예로부터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간주하여왔다. 또 인민이 군대를 원호하는것을 백성의 응당한 도리로 여겨왔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게 있어서 군민일치는 그들의 생명이고 존재방식이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지나온 10여년간을 돌이켜보아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군사적위협과 도발로 나라의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달았다. 그 엄혹한 시기 인민군군인들은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키면서도 구월산과 울림폭포를 비롯한 명산, 명소들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원쑤들과의 싸움에서는 무적의 군대이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들의 행복을 수호하고 창조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인민군대이다.

지난해 9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고있다고, 이런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며 최고사령관의 자랑이라고, 인민군대를 믿고 물놀이장을 일떠세울것을 결심하기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지난날에도 오늘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그런 인민군군인들에 의해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된 공원들에는 배구장, 롱구장, 바드민톤장, 로라스케트장들이 꾸려지고 각종 유희 및 운동기구들도 설치되였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 그 어느때보다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신들메를 풀 사이없이 훈련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인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을 쓰는 군인들에 의하여 내 조국의 산과 들은 더 아름답게 단장되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커가는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지켜가는 이런 인민의 참된 아들딸들이 있어 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이라는 웨침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본사기자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 떨쳐가는 조선인민군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가는 군인건설자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주체102(2013). 9)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7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영원무궁할 조국의 미래

광명성절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다.

해마다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이날을 맞이한다. 올해의 광명성절도 조국에서는 성대히 경축하였다.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7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자기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그리고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김일성**민족이 대대손손 번영해나갈수 있는 만년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이의 선군혁명령도사는 백두산대국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흐를것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

제18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은 재중동포들

중앙사진전람회

조선소년단 진국련합단체대회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장의 일부

모의 정이 절절하게 흐르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순간도 잊지 않고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총대전우로 살며 투쟁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보시고 앞으로도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으며 광명성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도 보시였다. 공연출연자들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태우시며 한평생을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속에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칭송하였다. 심장의 피를 세차게 끓게 하는 공연, 세련되고 참신한 공연,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선군태양의 노래》가 진행되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중에서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노래한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아름답게 피여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하여 황홀경을 이룬 제18차 **김정일**화축전장이 주는 여운 또한 컸다. 축전장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였다.

제23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과 광명성절경축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빛나라 백두의 위업》에서도 출연자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갈 천만군민의 의지를 우아한 률동과 세련된 형상, 여러가지 대형변화에 담아 보여주었다.

제23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

이밖에도 광명성절을 맞으며 평양과 지방들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백두산밀영결의대회,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중앙사진전람회,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마식령스키장에서 청소년학생들의 스키야영, 제19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등과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여러 예술단들과 재일조선인예술단에서 올린 공연종목들과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각 도들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진행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의 노래모임 등은 올해의 장엄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모두가 힘차게 달려갈 결의들을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은 더욱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 조국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조선중앙통신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빛나라 백두의 위업》

고결한 충정의 분출

지난 3월 9일, 조국땅에는 공화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존엄높고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여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이 펼쳐졌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에 앞서 대의원후보자추천사업이 진행될 때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대회를 비롯한 온 나라의 선거구들의 선거자대회와 회의들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여기에서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끼였으며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는 한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되여있으므로 자신께서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고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땅에 펼쳐진 선거의 날 천만군민은 환희로 설레였다.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의 인민군장병들은 100% 찬성투표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시였다.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과 환희가 하늘땅에 차넘치는 속에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도 숭고한 공민적자각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선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5호구 제43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조선인민군 제855군부대 부대장 김광혁에게 투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후보자를 만나시여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부대를 찾아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재료연구소 소장인 **김정일**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김상옥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탁월한 령도예술과 고매한 풍모를 지닌 령도자이십니다.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신것은 원수님에 대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 고결한 충정의 분출입니다.》

선거에 참가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류명길은 말하였다.

《지난 기간 조국에 수없이 왔었지만 이렇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기는 처음입니다. 너무도 가슴이 벅차 정말이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격정을 표현할수 없습니다. 조국의 인민들과 함께 선거에 참가하고보니 정말이지 우리의 원수님은 위대하시고 그이를 모시여 우리 조국의 오늘도 좋지만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이 차넘칩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해외동포들도 선거에 참가하였다.

시

김일성 김정일대원수님 축복하신다

단군조선시원의 백두산
선군혁명시원의 백두산
통일조선시원의 백두산
그 담력과 용맹
순결과 열정을 그대로 닮은
김정은최고사령관동지 계셔
겨레는 자주통일, 강성조선
세계는 호혜, 평등, 정의의 꿈을 꾼다

수령결사옹위
이를 조국의 목숨으로 알고
수령유일중심의 일심단결
이를 민족의 운명으로 새긴
백두산 선군조선이다

세상바람이 어떻게 불든
통일조선의 눈부신 미래
병진로선의 찬란한 목표
더 빨리, 더 높이
온 세상에 보란듯이 펼쳐놓아
세계가 탄복하는 최첨단의 문명조선이다

혈전만리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꽃펴온 이민위천 사랑의 정치
피눈물 고난의 행군속에
금성철벽으로 다지고다진 선군정치

＝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유럽지역 본부 의장 리준식 ＝

숭고한 동지애의 광폭정치
승리의 반석으로 새긴 **김정은**원수
 계셔
온 겨레, 온 세계가 우러르는
반제자주조선이다

불멸불후 위대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두분 대원수님
혁명의 성산 백두산하늘에서
조선의 승리 **김정은**동지
 고무하신다
조선의 영광 **김정은**원수
 축복하신다

가사

우리의 희망 **김정은**동지

로동당품은
행복의 요람
대원수님들의 품
불변의 그 품 **김정은**동지
인민은 친근한 어버이
 당신이 계셔
오늘도 안녕한 삶을
 누려갑니다

혁명의 진리
령도의 순결
이민위천사랑에
불타는 심장 **김정은**동지
조선은 백두산장군
 당신을 따라
정의로운 자주의
 빛을 뿌려갑니다

인류의 미래
반제의 승리
영원무궁 펼쳐갈
만민의 희망 **김정은**동지
세계는 인류의 태양
 당신과 함께
반제반전평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질좋은 합성가죽 제품 생산을 위해

평성합성가죽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그들은 올해에도 질좋은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결의를 안고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실리있는 기업, 경영전략을 세우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애국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질좋은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있다.

제3직장 도포1작업반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보다 높이고 생산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도포액, 기름가열기작업반과 도포2작업반 로동자들도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질좋은 도포액과 온도보장, 신발중창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해심, 소면작업반을 비롯한 제1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섬유방사공정과 통기성과 탄성이 좋은 부직포중창생산공정에 의거하여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이미 여러가지 합성가죽생산은 물론 비닐벽지생산공정과 합성가죽과 EVA발포체를 접합할수 있는 생산공정, 잔디부직포생산공정을 확립해놓고 생산을 늘이고있다.

나라의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곳 종업원들은 최근년간에만도 용매회수설비, 습식수지도포설비, 보이라, 부직포설비, 제품검사기, 연마기, 도포액제조설비 등 설비들을 현대화하였다.

하여 오늘 물막이성과 물견딜성이 좋고 색갈이 다양하며 두께와 성질이 고르로운 합성가죽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해

질좋은 합성가죽들이 생산된다.

평성합성가죽공장에는 가방을 생산하는 분공장도 있다.

총련일군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깃든 이 분공장에서는 지금 쓰기 편리하면서도 산뜻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비롯한 합성가죽가방을 생산하고있다.

그 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좋은 평을 받고있다.

오늘 이곳 공장에서 만든 합성가죽은 나라의 여러 경공업공장들에서 많이 요구하고있다.

가죽보다 일반적으로 당김세기, 반복구부림세기, 추위견딜성 등이 약하고 신발재료로써는 땀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약한 결함이 있는 합성가죽에 대한 연구사업의 끊임없는 심화, 이것이 오늘 공장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내세운 목표의 실현을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쳐가는 조국

지난해 10월 나이제리아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이 주목된다.

《지금 조선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이것은 실지 조국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이다.

지난해 조국인민들은 문명한 생활을 담보하는 수많은 창조물을 건설하였다. 집집마다 현대적인 가구들과 부엌세간을 갖춘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종합적인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최신의료설비들로 가득찬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웃음 절로 넘치는 전자오락관과 립체률동영화관, 금릉운동관, 릉라인민체육공원… 조국인민들은 그밖에 각 도와 시, 군, 마을들마다에 많은 살림집과 함께 로라스케트장, 롱구장, 배구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과 화초공원도 새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조국에서는 이 모든것이 단 1년 지어 몇달사이에 일떠섰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지난해에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의 건설과정을 긍지높이 추억하고있다. 마식령은 이름그대로 말도 넘기 힘들어 쉬여간다는 험한 령이다. 더우기 그 지구의 주요기반암은 화강암이여서 건설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바로 그곳에서 군인건설자들은 비약의 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착공한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보통상식으로는 1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던 수십여개의 대상건설을 해제꼈다. 40~120m의 폭을 가진 스키주로들과 삭도, 호텔과 숙소, 지하주차장과 직승기착륙장, 스케트 및 수영장, 눈포를 쏘는데 필요한 시설들…

하나를 건설해도 통이 크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세월을 주름잡아 단숨에 이룩하는것이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일본새이다.

그 열의속에 조국인민들은 지난해 건설부문만 아닌 나라의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종전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보다 높은 단계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조형의 인재들을 키우는 사업을 보다 활기있게 진행하였다. 결과 지난해 7월에 이어 8월과 9월에만도 세계적인 인터네트프로그람작성경연들에서 련이어 1등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국제무대들에서 우승하였다.

그리고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체육인들이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제27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70여차의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그 전해의 3.7배에 달하는 16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예술부문에서는 국제성악콩클, 제8차 국제기악연주가콩클, 제10차 국제청소년음악가콩클 등 많은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가요 《조국찬가》와 같은 명곡들이 많이 창작되여 인민들에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지, 조국의 부강번영에 바치는 헌신의 감정을 뜨겁게 심어주었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그리고 건설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국의 높이에 올려세울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 결심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의도와 잇닿아있다.

그이께서는 주체102(2013)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기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안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미래를 담보해주는 교육제도

—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국장 김성일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4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미래인 후대들을 위해 조국이 베푼 또 하나의 시책이라고 할수 있다.

국장: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나라와 민족마다 교육에 기초하여 민족부흥과 국가발전의 길을 모색하고있다.

아시다싶이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101(2012)년 9월 25일에 조국의 미래와 강성국가의 튼튼한 토대를 위한 중대조치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주체56(1967)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 주체64(1975)년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완전한 실시 등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처럼 후대교육사업이 당(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관심속에 시종일관 중시되고 빛나는 력사를 수놓은 실례는 일찌기 없었다고 본다.

기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다.

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된것으로 알고있다.

국장: 그렇다. 우리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맞게 교육강령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면서 모든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결과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새로운 교육강령이 작성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중학교들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가르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새로운 교육강령이 작성된데 맞게 그에 기초한 교재집필사업을 따라세워 1단계 교과서, 참고서집필사업과 생산이 끝나 올해 새 학기전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교수강습, 재교육, 보여주기수업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달라진 교육내용과 방법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하여 교원들이 새로운 교육체계에 철저히 준비되고 교육자적자질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서는 교원양성규모를 늘이고 새로운 교육강령에 알맞는 합리적인 교육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교원육성사업의 질을 높이고있다.

기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사업에서 지적, 물질적조건을 갖추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본다.

국장: 옳은 말이다. 지금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속에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더 완비하고 개선하며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지금 전사회적으로 학교지원사업이 적극 벌어져 교육조건과 환경이 빠른 기간에 개선되고있다.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도처에서 학교건설을 모든 건설의 앞장에 내세우는 원칙에서 진행되여 여러개의 대상이 완공되였다. 그리고 실험실습실들을 새롭게 정비보강하는것과 함께 콤퓨터를 비롯한 각종 교구비품과 학용품, 실험설비들과 기구 등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 모든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우리는 선군조선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무료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겠다.

*　　*

조국의 래일을 그려가는 대학생들

세인을 놀래우는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이러한 자랑찬 창조물들중에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지혜와 정열,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는것도 적지 않다.

60여년전 대학은 전쟁(1950. 6—1953. 7)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 인민경제를 하루빨리 복구하고 현대적인 도시와 마을을 일떠세워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던 시기인 주체42(1953)년 10월 1일에 건설대학(당시)이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였다.

그때로부터 대학은 건설건재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으로 오늘은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여 건설부문과 도시경영, 국토관리, 환경보호부문의 인재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는 전당으로 자기의 면모를 갖추었다.

대학에는 여러개의 대학과 학부들, 수십개의 강좌와 박사원, 연구소 등이 있으며 현대적인 설계실과 실험실들도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창립 초기부터 국가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온 대학은 평양을 비롯한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의 건축물들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건설의 불바람이 일어나던 평양속도창조의 나날과 80년대속도, 90년대속도창조의 나날에 이들은 부재의 대형화, 경량화에 의한 조립식건설공법도입, 고층구조물의 내진설계방법확립 등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일본새로 건축물의 질과 건설의 속도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양체육관,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천석식당,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평양민속공원 등 수많은 건축물들마다에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다.

그 과정에 수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은 물론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최고발명가상 수상자들도 배출되였다.

오늘 대학에서는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교육의 결합, 수재교육과 박사원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세계적수준의 50여개 과목을 새로 개척하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그날 배운 지식은 그날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있으며 새로운 교수관리제와 창조적능력개발을 위주로 하는 시험방법, 교육정보화수단들을 교수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있다.

실시간강의, 록화강의, 실시간적인 질의응답 등 원격교육망을 통한 교육사업에 힘을 넣고있는 한편 5차원설계교육, 건축음향설계교육, 건축불장식설계교육 등 첨단분야에 대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건축설계에 열중하고있는 학생들

학생들이 배운 리론에만 그치지 않고 중요건설대상들에 나가 실천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기들의 창작적자질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대학생들속에서는 교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평양시도서관건축형성안, 평양—향산관광도로 휴식장형성안, 4. 25문화회관앞 분수공원형성안, 세포지구살림집형성안 등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가치있는 건축형성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있다.

특히 자기의 모습을 일신한 평양과 지방의 여러 도시에 대한 건축형성안은 놀라움을 자아

새로운 건축형성안을 완성해간다.

미술실기실에서

외국어강의

대학에서 설계한 건축물의 일부

학생들이 창작한 건축설계형성안의 일부

낸다.

최근년간 해마다 진행되는 5.21건축축전에 이 대학에서 출품한 건축형성안들이 특등과 1등을 하여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있다.

설계탁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그려진다며 설계도면우에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열정을 바쳐가는 이곳 교원, 연구사들과 대학생들이다.

《우리 식으로 착상하라, 우리 식으로 창조하라!》, 이것이 오늘 이곳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좌우명이다.

하나를 창조해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대상의 사명과 성격, 기능특성에 맞게, 건축물공간을 립체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점을 찍고 선을 그어가는 그들이다.

오늘 대학에서는 능력있고 유망한 건설, 건재부문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세계적으로 록색건축, 지능건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는데 맞게 대학에서는 교육사업에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있다.

록색화, 지능화된 절약형도시건설계획, 첨단건축연구(첨단건식공법의 적용연구와 첨단록색건재, 기능성재료의 연구, 평방당건설원가의 저하연구, 다기능복합건축물창조, 우주 및 지하건축공간창조), 불장식설계의 시감화기술연구 등 그들이 내세운 목표는 실로 방대하다.

하지만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이고 건축인재양성의 거점에서 일하고 배운다는 자각은 건축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는 그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고있다.

그들의 미더운 모습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와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마음속에 간직한 병원

병원의 실내 놀이장에서

중구역 류성소학교 2학년에서 공부하는 박연미 학생의 일기를 소개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옥류아동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었다.

11월 7일 목요일 사라진 무서움

며칠동안 나를 데리고 여러 병원으로 다니던 어머니는 내가 특발성관절염을 앓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며 옥류아동병원에 입원하자고 하는것이였다.

입원이라는 말에 무서운 생각이 든 나는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들어서던 나의 입에서는 《야!— 》하는 탄성이 저도모르게 나왔다. 벽들에는 아동영화와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꽉 차있었다. 그림은 1, 2층에도, 내가 들린 검사실들에도 다 있었다. 그래서 피검사할 때에도 별로 아픔을 몰랐던것 같다.

가는 곳마다에 분홍색, 노란색 아름다운 색갈의 의자들도 얼마나 폭신폭신한지…

어머니와 나는 신기하여 1층에 있는 꽃상점과 놀이장에도 가보았다. 상점에는 놀이감들과 사탕, 과자, 고운 꽃들이 많았다. 놀이장에서 나는 아이들과 그네도 타고 미끄럼대도 타면서 재미나게 놀았다.

나를 데리고 검사하러 다니던 간호원언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솟아난 병원은 6층으로 되여있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입원실과 치료실, 3개의 놀이장과 치료체육실, 상점이 있고 밖에는 야외물놀이장과 분수터, 직승기착륙장까지 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놀라왔다.

내가 입원한 호실은 5층 3호이다. 호실의 벽에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있다.

어느새 무서움이 사라져버렸다.

11월 11일 월요일 병원안의 학교

아침에 처음보는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나에게 자기를 병원의 환자들을 배워주는 선생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며 오늘부터 치료가 끝나면 매일 공부를 하자고 하는것이였다.

병원에도 학교가 있는가.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교실로 갔다. 2층에 내려가니 치료실들과 나란히 중학교실, 소학교실, 유치원교양실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나와 같은 아이들이 공부하고있었다.

선생님은 나를 한 책상앞에 앉히였다. 책상우에는 수학, 국어, 음악 내가 배우는 교과서들이 다 있었다.

나는 동무들과 수학을 배웠다. 모르는 수학문제를 차근차근 배워주는 병원의 선생님이 참 좋았다. 공부가 끝나자 선생님은 나에게 아침 10—12시까

불밝은 옥류아동병원

렌트겐검사를 받는 연미

지, 오후 4—5시까지 공부시간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오늘부터 교복이 아니라 환자복을 입은 학생이 되였다. 병원에서도 공부하게 되였다는것과 동무들이 생긴것으로 하여 나는 기쁘다.

래일은 교실에 일찍 갈테야.

11월 15일 금요일 할머니가 준 숙제

오후에 나는 치료체육실에서 운동을 하였다.

한 기재에서 한창 달리는 운동을 하고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동포할머니들이 병원을 참관하였다.

한 동포할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를 찬찬히 바라보던 할머니는 나에게 어디 아파서 입원했는가, 입원한지 며칠되였는가,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등 많은것을 꼬치꼬치 물었다.

나는 할머니의 물음에 하나하나 다 대답하였다.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기웃거리기도 하던 할머니가 돈을 얼마나 내고 치료를 받는가고 물었다.

회진

초음파안저검사실에서

나는 순간 어리둥절해졌다.

(돈을 내고 치료받다니?!)

나는 대답할수 없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숙제로 주겠다고 하였다.

할머니가 떠난 다음 나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원언니, 나를 배워주는 선생님에게 숙제문제를 물어보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준다고 모두가 말해주었다.

다 아는 문제를 나는 왜 몰랐을가.

11월 17일 일요일 정든 나의 집

오후에 우리 학급동무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너무 반가와 동무들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였다.

동무들은 병이 다 나았는가, 언제 퇴원하는가고 물었다. 이제 다섯밤을 더 자면 퇴원한다고 말해주자 동무들은 다같이 기뻐하였다.

정작 퇴원한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울적하였다. 아무 말없는 나를 보던 동무들이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있던 날들에 대해 동무들에게 말해주었다.

심장초음파실에서

병원에서도 공부는 계속된다.

아플 때 내옆에 앉아 밤새우던 담당선생님이며 사과랑, 사탕이랑 내 손에 쥐여주던 간호원언니에 대해서, 수학문제랑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던 다정하신 선생님에 대해서, 병원의 호실과 새로 사귄 동무들, 즐겁던 놀이장과 치료체육실… 정말 자랑스럽게 다 이야기해주었다.

내 말을 듣고 영남이는 자기도 어머니에게 말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에 우리모두가 《와— 》하고 웃었다.

이젠 병원이 정든 나의 집처럼 생각되였다.

며칠후 연미는 밝은 얼굴로 병원문을 나섰다.

퇴원하는 날 연미는 자기의 그림학습장에 두팔벌려 달려가 엄마품에 안기는듯 한 옥류아동병원을 그려넣었다.

작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려는듯.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어머니와 동무들을 만나

자식을 많이 둔 로인의 심정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 55인민반에서 사는 전쟁로병 김미화로인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가정을 찾았다.

그런데 그날 그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알고보니 그 로인의 둘째딸이 박사가 된것을 축하해주기 위해 세간난 자식들이 모여온것이였다. 우리의 흥심은 더욱 커졌다. 물론 이 글에서는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된 내용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부장으로 일한다는 둘째딸 황금희는 30여년세월 나라의 과학기술보급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그는 새 세기에 들어와 전국각지의 수많은 기관을 찾아다니며 콤퓨터활용에 관한 강습을 진행하였다. 그 수는 한해에 평균 200회나 된다고 한다. 그 나날 그는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정확히 알기 위하여 자료탐구와 기술문헌발취로 밤을 새우기도 하였고 밥술을 들면서도 영어를 비롯한 3개 나라 말을 배우느라 애를 썼다.

그런 그에게 일화가 많다.

남편과 동시에 출장길에 오르게 될 때면 어린 두 자식이 자체로 끓여먹을수 있도록 쌀이며 부식물 등을 1회분씩 종이봉투에 담아놓고 떠났다는 이야기, 지방출장이 잦아 남편과 자식들에게 미안하여 집을 떠나기 이틀전부터 노래와 웃음 등으로 감정조직을 하군 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에 대해 저마끔 말해주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 대학을 졸업하였는가고 물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긍지감에 젖어있던 김미화로인이 말하였다.

《둘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소. 우리 집에는 대학졸업증이 스물한개나 있소.》

그러면서 로인은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꼽아나갔다.

첫째 황금향과 넷째 황금옥, 다섯째 황금철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셋째 황예봉과 여섯째 황금순은 원산사범대학을 그리고 그들의 남편, 안해, 아들딸들도 평양외국어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한다.

올해 84살이라는데 무척 정정한 로인은 이어 자기의 이야기주머니끈을 풀어놓았다.

《내 손녀 하나가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회원이요. 그 애가 하는 말이 남조선에서 대학생 한명당 한해 등록금이 5 000~1만US$라고 하오. 거기에 교재와 학용품값, 기숙사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2만이나 된다던지… 아마 우리 자식들이 무료로 받은 의무교육과정은 제쳐놓더라도 대학과정만을 돈으로 계산한다 해도 아마 엄청난 액수가 될것이요.

또 집문제를 거든다 해도 남조선의 서울에서 100㎡짜리 살림집가격이 땅값에 따라 50~100여만US$라고 하는데 평양에서 사는 나의 여섯자식모두는 국가로부터 덩실한 집들을 무상으로 받고 사오. 지난해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에서 강좌장으로 일하는 다섯째가 가구들까지 그쯘히 갖추어진 2백여㎡짜리 새집을 받았소. 그러니 내가 큰 부자인셈이지.》

로인은 그러면서 자기는 늘 자식들에게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이 고마운 조국을 위해 힘껏 일해야 한다고 이르군 한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정의 식솔들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이불생산을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해마다 높은 실적을 이룩하여 인민들의 좋은 평을 받는다는 경제일군들인 첫째와 셋째,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을 중앙기관의 일군으로, 대학의 강좌장, 박사로 키워주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때마다 국가적인 대회의 대표들로 거듭 내세워주는 조국앞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넷째와 다섯째, 그런가 하면 평양외국어학원의 교원으로 일하면서 《어머니 그 품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한 수많은 글작품을 창작발표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10여차례나 기쁨을 드렸다는 여섯째 그리고 그들의 아들딸들…

놓고보면 조국의 사랑이 고마와 둘째 황금희도 그토록 애써 일한것이며 온 가족이 그렇듯 맡은 일에 마음을 기울여오는것이였다.

로인은 말하였다.

《내가 바라는것은 우리 자식들이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것뿐이요.》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둘째 황금희 (왼쪽)

첫째 황금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셋째 황예봉(오른쪽)

다섯째 황금철

여섯째 황금순 (가운데)

상식

산성식료품을 많이 먹으면

음식물은 몸안에 들어가면 소화흡수되여 어떤것은 산성물질로 되고 어떤것은 알카리성물질로 변한다.

건강한 사람은 몸안에서 산과 알카리의 평형이 유지된다.

그러나 로인들과 환자들은 이러한 자동조절계통이 약하다.

산성음식물은 흰쌀, 밀가루, 락화생, 사탕, 술, 고기, 물고기, 알류이고 알카리성은 남새, 과일, 콩류, 우유, 미역 등이다.

만일 물고기, 고기, 알류 등을 지내 많이 먹으면 어지러움, 가슴답답한감, 변비, 잠장애,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몸안에서 산성물질이 우세하기때문이다.

산성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젖산이 많아진다. 젖산이 많아지면 고혈압병, 동맥경화증, 궤양이 생길수 있다.

또한 산성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몸안에서 칼시움, 마그네시움이온이 소모되여 연골병이나 로인성신경통이 오기 쉽다.

더우기 감염성질병 등으로 열이 날 때에는 산소가 부족하므로 젖산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산성음식까지 먹으면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된다.

그러므로 산성음식물과 알카리성음식물을 균형이 맞게 먹어야 한다.

*　　　*

위인을 모시여 체육강국으로 등장하는 북

오늘 공화국의 체육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이룩하는 경기성과들은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긍지를 안겨주고있다.

세계적인 강자들을 물리치고 련이어 승리를 쟁취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공화국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도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한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에 대하여 전하면서 그 위대한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났기에 조선축구의 승리는 필연적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언론들은 공화국이 축구분야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찬양하면서 《북조선축구의 승리의 비결은 세계의 그 어느 팀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완강한 정신력과 집단력,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다.》는 세계축구평론계의 평가에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공화국 녀자축구선수들의 자랑스러운 경기성과들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공화국이야말로 축구를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있다. 축구를 국가적으로 중시하고있으며 선수들이 경기에서 성과를 거두면 영웅처럼 환대하고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전심전력하여 경기에 몰두하고있다. 이북의 축구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쟁취할수 있는 종목이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위인을 모시여 체육강국으로 등장하는 이북을 보면서 정말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공화국의 현실은 위인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무명의 선수도 세계패권자로 떠오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였고 남조선륙상애호가협회의 한 회원은 《이북의 체육은 아시아를 뛰여넘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고있다. 그것이야말로 강성국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북의 벅찬 모습이다.》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는 한 체육인은 령도자가 위대하면 민중도 모두 강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애국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고 재능을 꽃피우며 참된 삶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참으로 부럽다. 이북선수들이 세계최우수강자들을 이기고 1위의 단상에 올라 우리 민족을 금메달로 빛내이고있는것은 민족의 위대한 령수를 모시였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북의 체육인들은 금메달을 쟁취하면 그 영광을 제일 먼저 **김정은**최고사령관께 드린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지난날 마라손경기에서 1등을 하고도 제 나라가 없었던탓에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민족이 오늘은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세계체육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고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휘날려가고있다.

공화국체육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금메달과 함께 체육강국으로 빛날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속담

(우둔성)

—누워서 침뱉기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것도 모르고 우둔한짓을 하는 사람을 비웃어이르는 말.

—눈치가 있으면 떡이나 얻어먹지

아무것도 못할 위인이라는 뜻으로 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보고 이르는 말.

—도끼를 들고 나물캐러 간다

제격에 어울리지 않는 우둔한 행동을 하는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미련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

어리석거나 경험이 없어서 물정에 어두움을 이르는 말.

아무것도 모르고 덤벙덤벙하는 것을 이르는 말.

—바람부는 날 가루팔러 가듯

조건이 나쁜 때에 할수 없는 일을 벌리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쥐구멍 막으려고 대들보 들여민다

작은 물건이나 적은 력량으로도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것을 엄청나게 큰것을 들여미는 우둔하고 어리석으며 분수없는짓을 비웃어 이르는 말.

모두가 체육활동에 참가한다

얼마전 사회과학원에서 일을 본 우리는 연구소들간의 배구경기가 진행되고있다는 이야기에 끌려 그곳 경기장을 찾았다.

선수들은 법률연구소와 경제연구소의 연구사들이였다.

호각소리에 뒤이어 상대편의 처넣기한 공을 받아 재치있는 련락과 함께 순간 타격이 성공되는 순간 《야!— 》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승부를 겨루는 배구경기

한편 내리꽂히는 공을 침착하게 받아 련락한것을 기묘하게 살짝 넘겨 또 한점 올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연구사들.

경제연구소의 젊은 선수들의 힘있고 재빠른 타격은 모두의 절찬을 자아냈다.

여든을 넘기였다는 법률연구소 김봉철연구사의 공다루는 솜씨에 역시 젊은 시절 축구선수로 이름날린 체육인이 다르긴 다르다고 감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응원 또한 장관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감독이라도 된듯 선수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열심히 경기를 지도하였다. 멋진 타격이 성공할때마다 몸짓, 손짓까지 해가며 경기를 응원하고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였다.

처넣기와 공받기, 련락과 타격, 막기에 이르기까지 어쩌나 솜씨들이 대단한지 시간이 갈수록 선수들이 연구사들이라는것이 놀랍게만 여겨졌다.

열띤 응원은 량팀간에 벌어지는 또 하나의 경기였다.

경기는 법률연구소팀이 3:2로 경제연구소팀을 이긴 가운데 끝났다.

연구사들의 배구기술이 전문선수들 못지 않다는 우리의 말

열기띤 탁구경기

정구경기가 한창이다.

에 이곳 일군인 장금철은 말하였다.

《지난해 가을에 법률연구소가 우승을 했는데 올해 봄에도 1등을 할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과학원에서는 배구, 탁구, 정구를 대중체육종목으로 정하고 연구소별 대항경기를 련맹전의 방법으로 한해에 세번 진행하고있는데 그 열의가 대단합

니다.》

많은 경우 앉아서 일을 보는 연구사들인것으로 하여 과학원에서는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하는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다.

하여 마당에 배구장, 정구장을 꾸려놓은데 이어 새로 지은 청사의 맨 웃층에는 800㎡의 실내체육장도 새로 건설하였다.

기관안에 배구, 탁구, 정구를 할수 있는 실내체육장을 번듯하게 꾸려놓은데 맞게 이곳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운동과 체육경기에 적극 참가하도록 장려하고있다. 경기가 진행될 때면 매 단위의 일군들부터가 팀의 주장이 되여 앞장서고있다.

처음에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군 하던 체육장으로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다.

여가시간은 물론 일요일에도 탁구장과 배구장, 정구장은 비여있을새가 없다고 한다.

일군들의 체육기술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하기에 사회과학원은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조에서 정구 1등, 롱구 3등을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대중체육열의가 높아지자 집단의 분위기도 한결 달라져가고있다.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사업성과도 부쩍 올라갔으며 기관안에는 랑만과 정서가 차넘치고있다.

민족고전연구소 실장 최경성은 말하였다.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을뿐아니라 사업열의도 더 높아진다는것이 나의 체험입니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체험을 소중히 여기기에

평양시구강병예방원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보배손을 가진 명의사로 불리우는 의료일군이 있다. 그가 바로 교정과 과장 리창원이다.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그는 한창 초급중학교 녀학생의 구강교정을 하고있었다.

학생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유모아도 해가며 어느 부위가 아프지 않는가 또 입을 다물때 편안한가도 물어보며 솜씨있게 구강교정을 해가는 그의 모습은 의사이기보다 마치도 다심한 어머니같았다.

체육선수와 같은 우람한 체격을 소유한 그의 손이 발휘해나가는 기술은 참으로 놀라왔다. 그의 신비스러운 손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한 녀성이 말하는것이였다.

《지금 치료받는 저 애가 내 딸입니다. 사실 몇달전까지만도 딸애의 이발모양새는 그리 곱지 못했습니다. 그러던것을 과장선생이 바로잡아주었는데 아예 딴 아이처럼 되여가질 않겠습니까. 정말 듣던바대로 과장선생의 손은 보배손입니다.》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끝난후에야 우리는 리창원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그가 평양의학대학(당시) 구강학부를 졸업하고 평양시구강병예방원에서 일하게 된것은 주체72(1983)년부터였다고 한다.

구강교정은 이발과 턱 등 얼굴의 정상적인 발육단계에서 생기는 부정과 변형을 예방, 치료하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얼굴형태를 곱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치료용의자앞에 처음으로 선 그에게 있어서 제일 기쁠 때는 자기의 손에 의해 훨씬 고와진 모습으로 병원문을 나서는 환자들을 볼 때였다.

하여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모두 아름답게 만들어주자는 결심을 안고 그가 제일 품을 들인것이 구강교정학앞에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이였다. 그는 낮에는 낮대로 환자들에 대한 치료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밤대로 학문탐구로 깊은 사색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1, 2년…

그 나날 간혹 차례지군 하는 여가시간과 휴식일마저도 그는 구강교정의 세계적인 발전추이를 파악하기 위한데 바치였다.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등 그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한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그는 부정교합의 예방과 치료를 체계화하며 그 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구강교정에 필요한 《용수식턱확대나사》와 《성형수지보정장치》기구를 우리 식으로 창안하여 발명권도 받았다.

그의 실력이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정됨에 따라 찾아오는 환자들도 늘어갔다. 그럴수록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성과 정성은 더 높아졌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는 그에게서 교정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오늘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자기의 몫을 뚜렷이 하고있다. 그들이 보내온 감사편지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그도 이제는 로년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환자치료와 구강교정학탐구에 대한 정열은 더욱 배가된듯싶다.

이러한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과장선생이야 구강교정분야에서 권위자인데 좀 쉬기도 하면서 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우리 구강교정전문가들은 언제나 환자의 마음을 잘 알고 높은 실력과 뜨거운 정성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자면 세계적인 구강교정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함께 자질을 소유해야 한다.

그의 인생길에는 추억도 많다.

일본에서 태여나 주체62(1973)년 20살에 혼자서 조국의 품에 안긴 그의 앞에는 배움의 넓은 길이 활짝 열려져있었다. 그러나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장에서 헌신의 땀방울을 흘려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가책을 느끼며 그는 대학으로가 아니라 공장으로 진출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어느 한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남다른 애국심과 공로를 헤아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표창하여주었고 대학의 교정으로 떠밀어주었으며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는 새집을 먼저 배정해주었다.

그 소중한 체험들이 그를 구강교정부문의 실력자, 권위자로 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였으리라.

오늘도 그는 자기를 돈 한푼 안내고 공부하도록 해주고 어엿한 보건일군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환자치료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리창원

일본에서 부모와 함께
환자치료에 정성을 바쳐간다.
유모아

꿀과 잣

한 관리가 지방의 고을원에게 꿀과 잣을 구해보내라고 편지를 써보냈다.

그것을 받아본 고을원은 곧 답장을 썼다.

《잣은 산봉우리에 있고 꿀은 백성들의 집집에 있거늘 고을원으로서 어찌 산봉우리에 오르며 민가에 돌아다니며 꿀을 얻겠소.》

민족간부들이 자라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일부

주작봉마루에서 본 고향의 모습

얼마전 우리가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함께 평양의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본후였다.

주작봉마루를 내려서는데 동포들속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들의 눈앞에 봄물이 오른 공원속의 도시가 그림처럼 펼쳐져서였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박상일동포만은 연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기가 분명 대성산이 옳습니까? 그렇다면 저앞에 보이는 강이 합장강일텐데 … 나의 아버지의 고향이 이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추억속에 떠올렸다.

대성산은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와 평양8경의 하나로 불리웠다, 대성산과 일대에는 고구려시기 왕궁이 자리잡고있던 안학궁터를 비롯하여 민족의 오랜 력사를 보여주는 유적들이 많다, 그러나 이곳은 력대로 봉건통치배들의 소유로 되여있었고 일제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시기에는 착취계급의 유흥지로 되였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탈과 학대속에 살다 못해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의 아버지의 고향, 오늘의 평양시 대성구역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민족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이며 웃음넘치는 대성산유희장과 중앙동물원, 중앙식물원, 현대적인 평양화초연구소 그리고 곳곳에 일떠선 형형색색의 다층살림집들과 특색있는 봉사망들…

어제날 인민들의 설음많고 원성높던 이 고장이 훌륭히 전변될수 있은것은 나라가 해방(1945. 8. 15)된후 이곳 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들은 해방직후 자기들의 고장에 근로하는 인민의 첫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 일떠선 긍지를 안고 고향을 훌륭히 꾸릴 일념으로 날과 달을 이었다. 전쟁시기(1950. 6—1953. 7) 미제의 폭격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을 때에도, 1990년대 나라의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도 이악하게 고향을 꾸려나갔다.

두해전 인민군군인들이 대성산유희장에 대한 개건보수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때였다.

약속이나 한듯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사회주의건설도 조국보위도 다 맡을 일념을 안고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보다 더 훌륭하게 꾸리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군인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평양화초연구소의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정성다해 피운 수만포기의 꽃들을 안고 왔고 전쟁로병들은 전시가요를 부르며 공사장을 들썩하게 하였다. 가정부인들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도와나섰다. 그렇게 마음과 힘을 합쳐 군인들과 인민들은 유희설비들의 보수, 소문봉식당을 비롯한 여러 봉사망의 개건, 동천호뽀트장의 석축공사, 새 품종의 잔디발조성 등 방대한 공사량을 단숨에 해제꼈다.

그렇게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도 짧은 기간에 보다 훌륭히 꾸려졌고 박상일동포의 아버지가 어린시절 물장구치며 놀았다는 합장강도 단며칠사이에 번듯하게 정리되였다.

지금 이 고장의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200여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력사종합교양구, 력사유적전시구, 민속촌구, 현대구, 민속놀이구 등이 꾸려진 평양민속공원에 가면 참관자들마다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이고있고 중앙동물원에 가면 코끼리며 원숭이, 앵무새 등 각이한 동물들의 재주속에 인민들의 랑만이 차넘치고있다. 지난해에 새로 꾸려진 체육공원들에서도 로라스케트타기와 배구, 롱구 등으로 청소년들의 희열이 흐르고있다.

돌이켜보면 이곳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간직되여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대성산유희장을 비롯한 곳곳에 현지지도의 자욱을 남기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이어져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주작봉마루에서 대성구역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박상일동포의 아버지만이 아닌 이 고장에 태를 묻은 해외동포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대성산유희장

중앙동물원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평양민속공원에서

중국 베이징시 통수구 취병리 람조사룡 4호동 312호 최경숙언니 앞

조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언니,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언니가 조국에 왔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2년이 되여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에는 언니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는 늘 언니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답니다.

지난번 일요일에도 우리 가족과 동무들은 평양민속공원에 갔었습니다. 현대구며 민속촌구 등을 돌아보며 우리는 언니의 모습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언니는 조국에 와 모란봉과 대성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등 많은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운데서 제일 감탄을 많이 하고 즐거워한 곳이 바로 평양민속공원이였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맛나는 음식을 들면서 언니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그이의 애국, 애족, 애민의 리념을 높이 받들고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

새해부터 하는 잡도리가 막 다르답니다. 올해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는지 우리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조국의 힘찬 발걸음에 마음을 합쳐가기 위하여 우리들도 결심하고 맡은 일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집안식구들도 잘 있습니다. 나와 령감은 여전히 건강하고 아들 학림이와 딸 옥경이네도 모두 잘 있습니다.

학림이는 벌써 대학 졸업반 학생이 되였습니다. 대학기간에 꼭 좋은 론문을 쓰겠다며 잠도 자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고있습니다.

학림의 처도 예쁘게 생긴것처럼 집안일도 잘하고 시부모를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동네에서도 부러워하고 나도 딸 하나를 더둔 심정입니다.

언니는 아마 우리 학림의 아들 룡위를 보면 놀랄것입니다. 아직 두돌도 되지 않았는데 말도 잘하고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령리한지 그 애와 같이 있느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나보다 할아버지를 더 따른답니다. 온 집안식구가 모여 서로 오라고 하면 할아버지품에 먼저 안겨들어 방글방글 웃는데 그럴 때면 난 꼼짝 못하고 지고 맙니다.

옥경이네도 잘 있습니다. 옥경의 남편은 평양시송배전부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고 옥경이도 여전히 직장에서 혁신자로 맡은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옥경이네 딸 령경이는 지난해에 소학교학생이 되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재간도 좋은데 축구에 특별한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축구학급에 들어갔는데 글쎄 주장까지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몇년후에는 국제무대에 나설 우리 령경이를 보며 기뻐할 언니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집니다.

언니, 제가 집자랑을 너무 길게 하여 미안합니다.

언니와 아저씨 그리고 조카들도 모두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가족과 동무들은 언니의 그 유정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춤가락을 다시 볼 날을 기다립니다.

언제 다시 조국에 오겠는지 그때에는 혼자만 오지 말고 아저씨와 조카도 함께 오십시오. 꼭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형제산구역 하당1동
79인민반 최경희 올림

천연기념물

룡악산은행나무

룡악산은행나무는 룡악산의 법운암옆에 있다.

룡악산은행나무는 법운암의 오랜 력사와 함께 500년 자란 나무이다.

처음 세그루를 함께 심은것인데 오래동안 자라면서 합쳐져 한그루처럼 되여 기묘한 모습을 펼쳐보이고있다.

나무의 높이는 28m, 뿌리목둘레는 3. 7m이며 나무갓 너비는 16. 5m이다.

룡악산은행나무는 밑동에서부터 3개의 줄기로 갈라져자라는데 이 3개의 줄기는 2. 5m의 높이에서 다시 많은 가지를 쳐서 비자루모양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첫번째줄기 가슴높이둘레는 1. 8m, 두번째줄기 가슴높이둘레는 2m이며 세번째줄기 가슴높이둘레는 1. 7m이다.

이 은행나무와 더불어 먼 옛날 세 친구가 법운암구경을 왔다가 이곳에서 의형제를 맺고 여기에 세그루의 은행나무를 한곳에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룡악산은행나무는 세그루의 나무가 하나로 붙어자란 특이한 나무로서 학술적의의가 크다.

국가천연기념물 제472호로 지정되여 보호되고있다.

*　　*

상 식

우리 나라에서 제일 넓은 벌들

우리 나라에서 벌은 국토면적의 약 20%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 벌의 대부분은 절대높이 100m이하의 낮은 지대로 되여있으며 해발높이 100m이상에는 준평원벌들이 있다. 넓은 벌들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큰강들의 하류와 해안지대에 펼쳐져있다.

평양벌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하류연안에 펼쳐져있는 벌이다.

면적은 950㎢, 북남길이는 약 40km, 동서길이는 약 30km이며 해발높이는 10~20m이다.

재령벌은 황해남도 안악군일대를 중심으로 재령강연안에 펼쳐져있는 벌이다.

면적은 1 300㎢이다. 동서길이 37km, 북남의 길이 40km이며 해발높이는 20m이다. 지각운동에 의하여 내려앉았던 얕은 바다가 신기구조운동때 천천히 솟아오르고 거기에 강하천에 의하여 옮겨진 퇴적물들이 오래동안 쌓여서 이루어진 벌이다.

호남벌은 전라북도의 서해안, 금강하류와 로령산줄기사이에 펼쳐져있는 벌이다.

면적은 1 860㎢이며 해발높이는 20m이다.

호남벌은 화강암과 결정편암으로 된 지역이 깎이워 준평원화된 다음에 대부분지역이 이 일대의 강들이 날라온 흙모래에 덮이여 형성되였다.

이밖에도 열두삼천리벌(평안남도), 안변벌(강원도), 연백벌(황해남도), 김해벌(경상남도) 등 면적이 60㎢이상되는 비교적 큰 벌들이 90여개가 있다.

신비한 나라 조선

(전호에서 계속)

자녀들을 12년간 나라에 맡긴 부모들

특종소식이 범람하는 인터네트상에서 지난해(2012년) 공화국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소식은 사변적의미를 가지는것이였다. 세인의 비상한 관심은 법령에 명기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에 모아졌다.

세계가 열광하였다. 의문도 많았다. 그 엄청난 교육비를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지만 공화국은 1958년 모든 지역에서 무료교육에 의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실시를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무료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있다. 12년제의무교육을 거쳐 대학, 박사원에 이르는 전기간 그리고 사회교양기관들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교육받는다. 박사원까지의 기간이 20년이 넘으니 국가는 그 오랜 기간 교육비를 부담하는것으로 된다.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더 기적이라 할수 있는것은 공화국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 시책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이다.

1990년대 중엽에는 《북붕괴설》이 돌았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기회를 노리고 북의 숨통을 조이려 했지만 수백만자녀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공화국은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온 나라 부모들에게 《나라가 어려우니 교육비를 고려해보자.》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 공화국학생들의 주제곡인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에 그 모든 고난을 헤치시며 후대들을 위해 헌신하신 자기 령도자에 대한 감사의 정이 넘쳐 흐르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누구에게 감사해할 필요가 없다. 지불능력에 따라 자의대로 대학을 선택할수 있고 그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면 되는것이다. 그래서 서방에는 문맹자들이 많다. 12년간 자녀들을 완전히 국가에 맡긴 북의 부모들이 부럽다.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실린 자료를 보면 나의 고통이 어떤것이였는지 충분히 리해할것이다.

《얼마전 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약 23만 6 400US＄가 넘는것으로 발표했다. <미친 등록금>이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때문에 해마다 대학생의 27%가 휴학하고 매해 많은 학생들이 자살하는 참극이 빚어지고있다.

등록금이 없는 사회에서 공부시키고싶은 생각은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념원이 아닐가.

세금을 알 필요없다

공화국에는 세금이라는 항목이 없다. 즉 세금이 없는 나라이다. 이것도 과연 리해할수 있는가.

원래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헌납시키는 특징을 가진 이 조세제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조선은 이미 1966년에 농업현물세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1974년에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이렇게 실현해주었고 공화국은 지구상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나역시 세금에 시달려온 사람으로서 남조선에서 살 때 32개와 7개의 항목으로 된 조세와 준조세를 다 외우지 못했었다. 세금 아닌 준조세의 부담금(환경개선, 교통시설)은 9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집에서도 세금, 거리에 나서는 순간부터 세금이였다. 오죽하면 《세금폭탄》이라 했겠는가.

지난 5년간 남조선에서의 세금은 최고 86%까지 늘어났다. 하여 주민세대들의 빚은 9 000만US＄로서 이것은 매 세대당 5만US＄의 빚을 지고있는 셈이다. 《자살왕국》이라는 오명이 붙고 34분마다 1명씩 자살의 길을 택하는것은 사실 불가피한 것이다. 처음으로 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 세금문제로 남긴 인상을 지울수 없다. 그때 안내원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캐묻는 나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오려면 세금이 없다는것쯤은 알고있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재미동포 리경실

선군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

우리 재중동포들은 해마다 2월이 오면 중국의 심양에서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김정일**화전시회를 성대히 진행하군 한다.

해마다 전시회에 참가해온 나였지만 지난해처럼 가슴이 긍지로 부풀어오른 때는 일찌기 없었다.

타오르는 태양처럼 붉고붉은 **김정일**화는 마치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2012. 12. 12)로 자기의 존엄을 떨치고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는듯싶었다. 그것은 나뿐이 아닌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해외공민들모두의 심정이였다.

솔직히 말하여 지금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제 마음먹은대로 침략과 강탈을 일삼고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 대하여서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조국이 그 무엇으로써도 건드릴수 없는 강대성을 지니고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속에서도 조국인민들은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조국땅우에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펼쳐놓았다. 선군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나갈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부회장 권헌

뜨거운 마음

이번 방문에서 내가 큰 감동을 받은것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였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잊혀지기마련이라고.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른대도 잊혀지지 않는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태양과도 같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이다. 그 분들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빛을 뿌리고있다.

나는 그것을 금수산태양궁전을 비롯한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깊이 절감하였다.

그 어디에 가보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탑과 모자이크로 형상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이 조국인민들의 마음의 기둥처럼 모셔져있다.

또 TV를 보아도,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대원수님들을 칭송하고 못 잊어하고있다. 조국인민들의 그 마음은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하고있다.

대원수님들께서 오늘뿐아니라 래일도 영원히 조국인민들의 심장속에 함께 계시기에 인민들은 어려워도 기뻐도 대원수님들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 분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고있는것이다.

내가 살고있는 장백지구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깃든 혁명전적지, 사적지가 많다.

우리는 그곳을 잘 보호, 관리하여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장백현지부 지부장 량해자

고국방문

정이 들어, 마음이 끌리워

— 3중모범 길림시지부대표단 —

잡지 《금수강산》의 애독자들은 이 지면에서 낯익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지면의 주인공들은 지난 시기 동포사업, 애국사업을 잘하여 이미 여러 글과 사진을 통해 널리 소개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시지부의 동포들이다.

그들은 지난해 10월 조국을 또다시 방문하였다. 그들가운데는 지난 한해사이에 여러차례나 조국을 다녀간 홍영순, 김명희동포들도 있다.

방문기간 그들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조국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그들은 손에손에 꽃묶음을 안고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셔져있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경치아름다운 만경대를 방문하여 고향집앞에 있는 우물에서 맑은 물을 마시며 **김일성**대원수님의 한생의 업적을 돌이켜보기도 하였고 주체사상탑 전망대에 올라 나날이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을 부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흘려 싸운 어제날 용사들의 열렬한 애국심을 소중히 새겨보기도 하였고 이름난 정방산에 올라 우리 민족의 옛 발자취를 더듬으며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돌이켜보기도 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아 조국의 어린이들을 꼭 껴안고 사진을 찍고 노래도 부른 그들이다.

총련합회의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에 오면 정이 푹푹 들고 조국을 떠나면 인차 마음이 끌리워 또다시 방문하게 된다. 이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 해외동포들모두의 심정이다.》

그들은 방문기간 많은 사진을 찍었다. 아마도 조국의 모습을 두고두고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일것이다.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인사드리는 동포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았다.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올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은 동포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는 동포들

단군릉에서 진행된 개천절 기념행사에도 참가하였다.

성불사 기적비를 돌아보는 동포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중조우의는 만대에 푸르리 (1)

지난해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재중동포전쟁로병대표단이 본사편집국앞으로 글을 보내여왔다.

그 내용을 아래에 싣는다.

고국에서 진행되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그리운 고국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조선의 현실을 체험하였다.

이제는 평양을 떠나온지도 많은 시일이 흘렀지만 매일, 매 시각 받아안던 크나큰 영광과 감격, 격정으로 이어지던 고국방문의 나날이 아직도 어제런듯 눈앞에 방불하게 떠오르고 온몸을 뜨겁게 달구던 그 나날의 흥분은 로년기에 이른 우리들을 무한한 행복감에 잠기게 한다.

중조친선의 다리를 건느면서

우리의 감격은 전승 6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되는 경축행사에 재중동포전쟁로병들을 초청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에 접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였다.

1950년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더운 피가 슴배인 땅, 오늘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을 물리치며 강한 민족자주정신과 막강한 국력으로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키고있는 영웅조선이 우리를 부른다는 소식은 이역에 살아도 항상 선조들의 유골이 묻혀있고 전우들의 영령이 잠들고있는 고국을 잊지 못해하던 동포로병들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이게 하였다.

고국이 오늘까지도 지원군영웅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기쁨에 자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병환으로 하여 대표단에 속하지 못한 아쉬움속에 《희생된 전우들과 우리의 몫까지 합쳐 전쟁승리를 경축해주오.》라며 우리를 전송해주는 동포로병들의 얼굴에도 감격이 어리였다.

렬차를 타고 중조친선의 다리를 건늘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회가 감돌았다.

60여년전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날리며 용약 압록강을 건너서던 못 잊을 옛 전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얼마나 많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조선의 이름모를 산야에 묻히였던가.

전우들이여, 그대들이 쌓아올린 위훈과 공적에 떠받들리워 오늘 우리들이 다시 압록강을 건느고있다.

그대들의 위훈은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의 귀감으로 길이 빛나리라.

이렇게 속으로 뇌이는 우리의 마음은 평양으로 끝없이 달리고있었다.

분에 넘치는 환대속에서

우리는 고국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국경도시 신의주로부터 평양까지 고국인민들은 우리에게 꽃다발들을 안겨주며 동포애의 심정으로 반겨맞아주었다.

이러한 환대는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울리며 평양체류의 전기간 이어졌다.

우리들을 찾아와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따뜻이 물어본 한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재중동포전쟁로병들을 잘 보살펴주도록 지시하시고 방문일정과 생활정형을 매일 알아보시며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는것을 전해주었다.

우리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그이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줄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다.

마침내 우리 로병대표단성원들에게 최상의 영광이 차례졌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축행사에 참가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우리 지원군로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것이였다.

받아안은 영광이 너무 커 우리는 눈물을 머금으며 목청껏 만세를 웨치고 또 웨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대표단의 김강희단장을 전승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의 주석단에 내세워주시고 전승절을 경축하는 모든 행사장들에 해외동포로병대표들을 자신과 가까운 초대석의 제일 좋은 곳에 자리잡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국을 방문하는 동포로병들에게 돌려주신 육친의 사랑과 태양처럼 환하신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영광을 우리들은 한생토록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승마주로를 밟으며

나는 지금까지 조국을 수많이 방문하였다.

세간난 딸자식이 친정집을 찾듯 한해에도 여러차례씩 조국을 찾군 하였다.

조국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것은 사랑에 대한 생각이다.

지난해 12월 평양시 교외에 있는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았을 때이다.

60여만㎡나 되는 넓은 부지에 건설된 승마구락부에는 근 2 000m의 길이를 가진 승마주로와 실내 및 야외승마훈련장들, 승마지식보급실, 피로회복원, 수의병원, 종축연구소 등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것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첫눈에 대뜸 그모두가 많은 품을 들여 현대적으로 꾸려졌다는것이 느껴졌다.

실내승마훈련장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었다. 바깥벽체를 통나무로 쌓은듯 한 훈련장안에 들어서면 내부의 웅장함과 이채로움, 구석구석에 비껴있는 섬세함으로 하여 탄성이 절로 나온다. 추운 겨울에도 훈훈한 기온을 보장할수 있게 꾸려진 훈련장은 자연채광과 조명설비를 리용하여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여있다. 그리고 바닥에 톱밥과 모래, 석비레, 소금 등을 섞은 재료를 깔아놓아 건물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승마운동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도 상하지 않게 되여있다.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이곳은 안팎으로 손색이 없는 훌륭한 훈련장이였다.

나는 이런 멋진 곳에서 인민들이 마음껏 승마운동을 하는것을 보고 감동되였다.

흔히 사람들은 마술 하면 부유계층의 취미의 승마로 인식하고있다.

그러한 승마운동이 조국에서는 인민들 누구에게나 베풀어진 대중운동으로 되였다고 생각하니 조국인민들이 몹시 부러웠고 행복스러워보였다. 그리고 인민들의 이러한 행복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가 느껴졌다.

승마구락부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안 일이지만 그이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 전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한밤중에 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의 질을 높이도록 방도도 밝혀주시고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으신듯 그로부터 몇 시간후인 이른새벽에 또다시 현장에 나오시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승마구락부의 승마복에도 그 도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밤에도 보시고 새벽에도 보시며 완성시켜주신 그이의 심혈이 어려있다고 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건축물도 많지만 건설과정은 물론 완공후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령도자와 그렇듯 깊은 인연을 맺은 창조물은 없을것이다.

참으로 7개월남짓한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는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낳은 창조물이다.

지금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나는 인민을 위해 더 크고, 더 새로운 구상을 펼치시며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국의 해외공민으로서 진심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우리 재중동포경제인들은 그이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리순남

새 조선의 탄생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마침내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15성상의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에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광활한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강도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인민의 건국열의는 하늘에 닿았지만 누구도 해방된 조선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새 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건당, 건국, 건군을 해방된 조국에서 수행하여야 할 3대과업으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에게 조선이 나아갈 길은 쏘련식민주주의나 미국식《민주주의》가 아닌 참다운 진보적민주주의길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의 건국위업은 건당, 건군사업을 철저히 선행시켜 그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0일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혁명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북조선에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인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시고 당의 창건을 선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북조선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듬해 8월 합당의 방법으로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하시였으며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난 주체38(1949)년 6월말에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을 합당하여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시고 당의 명칭을 조선로동당으로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다운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해방직후 평양학원이 혁명무력골간육성의 원종장으로 창설된데 이어 이듬해에는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창립되였으며 혁명무력의 모체부대로서 중앙보안간부훈련소가 튼튼히 꾸려졌다. 련이어 군종, 병종별 군사학교들과 부대들이 꾸려지고 자그마한 병기창으로부터 발전한 군수공업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져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건당, 건군위업의 성과적인 추진과 함께 정권문제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의 광범한 애국적인 민주력량을 하나의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우시고 그에 의거하여 주체35(1946)년 2월 첫 인민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였다.

해방의 환희에 넘쳐있는 인민들

그리하여 북조선에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과 8시간로동제를 비롯한 민주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짧은 기간에 봉건적인 사회관계를 완전히 털어버리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듬해 2월 첫 사회주의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여 공화국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로부터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적인 조치와 현명한 령도밑에 외세에 의한 조선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북남총선거에 의하여 마침내 주체37(1948)년 9월 9일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이에 커다란 위구를 느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또 한차례의 커다란 재난을 들씌웠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해방전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공을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물리치고 적의 아성에로 육박하여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뒤이어 대전을 해방하였으며 적들을 부산일대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다. 후방의 인민들도 전시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15개 추종국가무력이 달려드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전쟁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일시적이며 전략적인 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반공격에로 넘어가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기여 적들을 38°선 이남지역으로 몰아내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갱도전법과 비행기사냥군조활동, 땅크사냥군조활동, 저격수조활동, 습격조활동을 비롯한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술로 무장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막대한 손실과 대참패를 당하였다.

미제는 드디여 주체42(1953)년 7월 27일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되였고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군사전법, 세련된 령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에 의해 마련된 력사의 기적이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철민

《해동가요》와 김수장

김수장은 조선봉건왕조 중기의 음악가이다.

그는 영조왕때의 이름난 가객이며 재능있는 시조, 가사창작가이다.

그는 서울 서민계층의 가문에서 태여나 한때 하급관리생활도 하였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었으나 량반신분이 아닌탓으로 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수 없었던 그는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우리 나라의 가곡, 가사발전을 위한 시조, 가사창작과 후배양성에 일생을 바쳤다.

그는 김천택과 함께 경정산가단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시조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당시까지 전해오는 가곡, 가사작품들을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1763년 시조작품집 《해동가요》를 편찬하였다.

《해동가요》에는 수백편의 시조작품들이 작가별로 배렬되여있다. 편찬자는 작품뒤에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해제 또는 론평을 주었다. 여기에 다른 시조집들과 구별되는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우리 나라 가곡발전에 이바지한 그의 공로가 있다.

생애의 말년에 김수장은 창작과 가창에 소질이 있는 제자들을 자기 집에 모아다놓고 노래짓는 법, 노래를 부르는 법, 악기연주법 등을 가르쳤다.

김수장이 창작한 시조작품들은 대체로 그가 편찬한《해동가요》에 실려있다.

그의 시가의 주요주제는 부귀공명을 탐내는자들에 대한 조소와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신조에 대한 찬양 그리고 도시평민들의 인정세태 등이다.

벼슬에 대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 분별없이 덤벼치는자들을 야유한 시조《환욕에 취한 분네…》, 부귀도 공명도 모두 생각지 않고 가난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지향을 반영한 시조 《복더위 훈증한 날에…》 등이 김수장의 창작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김수장은 시대적 및 자신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반봉건적주제의 작품들, 특히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근로인민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반영한 작품은 남기지 못하였다.

그는 서민출신의 시인, 가수로서 시조문학의 주제령역을 사회적으로 확대한 시인으로서, 국문시가유산의 수집정리자로서 문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였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이름짓기풍습

새 생명이 태여나면 이름을 지어주는것은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풍습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이름짓기풍습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름에는 민족의 정서와 감정, 민족의 넋과 함께 부모들의 소박한 념원도 담겨져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고유한 우리 말로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옛 력사기록들을 보면 우기, 로인, 성기, 아란불, 부루, 모수 등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고유한 조선말로 된 이름들이였습니다.

삼국시기에도 고유한 우리 말로 이름을 짓는 풍습이 그대로 계승되였습니다.

삼국시기의 이름에는 아명, 본명, 자, 호, 시호 등이 있었습니다.

아명은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처음으로 지어주는 이름으로서 사랑스러운 이름이라는 뜻에서 애명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흔히 아이가 출생하면 며칠안으로 이름을 지어주는것이 보편적이였습니다.

미리 남자이름과 녀자이름을 둘다 지어놓았다가 태여난 아기의 성별에 따라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본명은 정식으로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본명은 대체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였다는것을 선포하는 성년식 즉 관례를 계기로 지어주었습니다.

자도 역시 관례를 계기로 지어준 다른 이름이였는데 지난날 일상생활에서 아명이나 본명보다도 흔히 자로 이름을 부르는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되여있었습니다.

호는 본명이나 자외에 지어부르는 이름으로서 그것이 처음으로 출현한 삼국시기 말에는 대체로 중들속에서 스스로 지어불렀습니다. 그러던것이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서는 량반사대부들과 일부 부인들속에서도 호를 지어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가 널리 일반화됨에 따라 개별적인 사람들의 이름은 본명이나 자보다도 호로 잘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학식이 뛰여나 이웃나라들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리퇴계, 리률곡, 정다산, 박연암 등을 들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본명은 리향, 리이, 정약용, 박지원이였습니다.

시호는 죽은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인데 삼국시기 왕과 왕족들속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삼국시기 시호를 제일 먼저 쓴 나라는 고구려인데 처음에는 왕을 장사지낸 고장의 지명을 따서 시호를 지었습니다.

시호는 왕이나 왕족들뿐아니라 봉건국가에 공로를 세웠거나 벼슬품계가 높은 량반, 관료, 유학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름짓기풍습에서 주목되는것은 이름 두자중에서 한 글자를 같이하여 형제관계를 나타내는 돌림자풍습입니다. 한 글자로 이루어진 이름인 경우에는 그 글자의 부수를 같이하는 방법으로 형제관계를 표시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이름을 본인의 생김새나 고장이름, 태꿈, 태여난 달이나 태여난 위치, 태여난 순서 등에 따라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조상전래의 민족적풍습에 맞게 별이, 봄이, 노을, 꽃분이, 시내 등과 같은 고유한 우리 말로 이름을 많이 짓고있으며 형제돌림자풍습도 그대로 지켜가고있습니다.

또한 조국의 사랑과 은정을 대를 이어 전하고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결심을 반영한 은덕, 은정, 보답, 행복, 충복, 충실 등과 같은 이름을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많이 지어주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민족의 전통적인 이름짓기풍습에 대하여 더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세대들에게 민족의 넋과 숨결이 살아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 민족고유의 이름을 지어주어 그들이 민족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는데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리라 굳게 믿고싶습니다.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계승무

사화

아버지의 기쁨

안축(1287—1348년, 고려 후기의 학자, 시인)은 부모에게 극진한 효자이고 자식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데서 너그러우면서도 엄정하였다. 그는 집안일 처리에서 공정하고 검박하였으며 자식들에게 량심과 도덕교양을 하기에 무척 힘을 넣었다. 그에게는 종기와 종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들은 다 아버지의 교양을 받아 사람됨이 량심적이고 진실하였으며 도덕품성이 밝았다. 안축은 아들들이 부귀공명을 누리는데서가 아니라 바로 훌륭한 도덕품성을 보여주는 때에 제일 기뻐하였다.

둘째아들 종원이가 17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얼마 안있어 사한으로 임명되였는데 그도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 자기 직무수행에서 빈틈이 없었으며 또 일을 성실하게 잘 처리한다는 평도 들었다. 어느덧 종원의 만기가 되였다. 그러니 인사담당관원들이 실적을 조사해보고 평정을 하여 승급을 시키던지 강직을 시키던지 할 판이였다. 자기 직무에 능력있고 성실하다는 평판이 자자했으니 종원이가 승급할 차례라는것을 입가진 사람들은 다 말했다.

안축은 엄격한 사람이여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좋은 사업평가를 받고 승급하기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였다.

드디여 인사조동의 명령이 발표되는 날이 왔다. 관청에 나갔다가 돌아온 종원이 환한 낯빛으로 들어서는것을 보고 안축도 은근히 기뻐하였다.

(일이 잘된 모양이구나.)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저녁인사를 한 아들은 그것으로 입을 다무는것이였다.

진중한 안축이였지만 이때만은 먼저 입을 떼지 않을수 없었다.

《너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일을 잘못했다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 같더냐?》

그제야 아들은 사실을 말하였다.

종원이와 같이 일보는 동료들속에 심동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종원이보다 나이는 많았으나 벼슬은 낮았다. 종원은 이번 기회에 자신보다 이 사람의 승진문제에 더 마음을 썼다. 그래서 직무수행실적을 알아보러 내려온 웃관원에게 심동로에 대해서 애써 좋게 말했다. 웃관원도 자기가 아니라 남의 관직을 올려주기 위해 애쓰는 안종원의 태도에 공감이 되여 그의 말을 심중히 들었다. 이리하여 종원은 자기에게 차례지게 될 관직을 결국 심동로에게 양보했다는것이였다.

종원은 이 말을 하면서 은근히 아버지의 얼굴빛을 살피였다. 아버지의 의사는 어떠한지,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 나쁘다고 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나 않겠는지 송구한 생각이 없지 않아서였다.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안축의 가슴에 기쁨이 서서히 끓어올랐다. 그는 자애에 넘치는 시선으로 20대의 아들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자기를 찾아보았다.

(장하다, 내 아들아!)

안축은 근래에 처음 겪는 격동된 심정으로 환희에 겨워 아들을 찬양하였다.

《사양하는것은 사람의 좋은 행실중에서도 으뜸가는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면 누가 나를 버리겠는가…》

안축은 여기서 말을 끊었다. 기쁨이 커서 숨을 잦히기 위해서인지, 이 짧은 순간에 아들의 손목에 이끌려 자신의 한생을 더듬어보게 되여서인지 그는 침묵속에 인생의 행복감에 심취되였다.

이윽고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 가문에 인물이 났으니 아마 더욱 번창할가부다.》

아버지가 생각밖으로 이렇게 기뻐하자 종원의 가슴도 따라서 높뛰였다.

그는 마음속깊이 다짐하였다.

《아버님, 아버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뼈에 새기고 나라의 진실한 신하가 되기 위해 한생을 참되게 살아가겠습니다.》

* *

상식

개마무사

개마무사라는 말은 고구려시기 철갑으로 무장한 사람과 말에 대한 호칭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했고 조국방위에서 위훈을 떨치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장을 잘 갖추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사람뿐아니라 말에도 갑옷을 입혀 외적과의 싸움에서 위력을 떨치게 하였다.

고구려벽화무덤들인 고국원왕릉, 쌍기둥무덤 등에는 마면갑과 말갑옷을 씌운 말에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무사들이 탄것을 그린것이 보인다. 무사들이 입은 갑옷들은 모두 너비 2~3㎝, 길이 3~4㎝의 쇠로 만든 패쪽들을 수많이 련결하여 만들었고 말갑옷은 그보다 좀 더 큰 패쪽들을 련결하여 만들었다.

고구려말은 자기가 뒤집어쓴 투구갑옷의 중량과 함께 중무장한 기병의 중량을 견디여낼 정도로 힘이 세고 산도 잘 톺아오르군 하였다.

등자는 세계적으로 고구려사람들이 제일 선참으로 창안도입한것으로 보고있다.

등자는 말에 오르내리는 수단, 두다리로 말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고삐를 쥐지 않고 말우에서 하는 활쏘기와 창쓰기는 등자를 어떻게 밟고 말을 자기 의사에 맞게 제어하면서 쟁기를 쓰는가에 달려있다.

고구려기병들이 신었던 못이 박힌 청동신발은 적을 제압하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말등자에 온몸을 고정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중무장한 고구려개마무사를 그린 벽화무덤으로서는 4세기의 안악3호무덤(고국원왕릉)과 강서 덕흥리벽화(408년)무덤 등이 대표적이다.

고구려의 중무장한 개마무사집단은 국방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 *

야 화

아이들의 마음이 흐리지 않게

리황(1501—1570년)이 말년에 고향에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며 세월을 보내고있을 때이다.

그의 뒤집에는 담둘레로 큰 밤나무들이 둘러싸여있어 가을이면 밤알들이 집뒤뜰에 많이 떨어지군 하였다.

어느해 가을이였다.

새벽에 일어난 리황은 버릇처럼 신선한 새벽바람을 쏘이며 집뒤뜰을 거닐었다. 그런데 푸름푸름 밝아오는 아침빛에 누런 밤알들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였다. 어떤 밤송이는 한껏 익어 큰 밤알들이 여기저기 떨어져있었다.

《아, 벌써 밤이 이렇게 익었구나.》

리황은 탐스럽고 먹음직한 밤알을 주어들었다. 그리고는 밤알을 담너머 뒤집뜰안으로 던지기 시작하였다.

뒤뜰안에 떨어진 밤알을 반나마 주어던졌을 때였다. 뜨락을 쓸려고 비자루를 들고 뒤뜰에 들어서던 하인이 놀랐다.

《나리님, 그걸 왜 도루 넘겨던지오이까?》

《오, 너냐? 어서 여기 와서 이걸 마저 없애버리자.》

《아니 나리님두, 그걸 먹을 사람이 없을라구 던지시우? 이제 아이들이 깨여나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겠나이까?》

《그걸 나도 안다. 허지만 아이들이 일어나 나오기 전에 없애야 한다.》

《예?》

하인은 영문을 몰라 서있기만 하였다.

《아이들이 이걸 주어먹으면 마음이 흐려져.》

《마음이 흐려진다구요? 원, 별 말씀을…》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저희 집뜨락에 떨어진것이라고 마음놓고 먹게 되면 앞으로 남의 물건을 허술히 보는 버릇이 생기게 될거구 주인의 승인없이 먹었으니 뒤집주인을 보기 부끄러울테지? 그러니 어린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에 티가 앉지 않겠니?》

하인은 하는수없이 리황의 말을 따라 밤을 주어던지기는 하였지만 아까왔다.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싶어하는 밤알이기에…》

《그렇게 아이들 생각이 지극하면 날이 밝은 뒤에 뒤집에 가서 좀 얻어다주거라. 그러면 뒤집주인이 안줄리 없거니와 우리가 던진것보다 더 줄수도 있을게다. 그래야 아이들이 밤 한알을 먹어도 마음에 티가 앉지 않게 될것이구 뒤집주인의 고마움도 알아 존경할테니 이웃간의 화목도 두터워질것이 아니냐.》

《알겠나이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이리하여 하인은 리황과 함께 뒤뜰에 떨어진 밤알을 아이들이 깨여나기 전에 다 주어넘겼다.

* *

전시회의 유물이 전해주는 이야기

지난해 7월부터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는 오랜 기간 유물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조국의 공민들이 기증한 유물전시회여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전시회에는 70여점의 력사유물들이 전시되였는데 모두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것이였다.

전시된 유물들가운데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것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유물들인 석간주어비무늬단지와 청화백자룡무늬항아리 등이였다.

그것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비파1동에서 살고있는 신재천주민이 기증한것이였다.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백수십여점의 유물을 나라에 기증한 신재천, 그는 력사학자나 고고학전문가도 아니였다. 그는 이 분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학자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대학병원에서 심장외과 과장으로 사업하였었다.

의학자와 유물수집가라는 상반되는 점은 우리의 호기심을 끌었다.

우리와 만난 그는 이렇게 서두를 뗐다.

《나는 일본에서 태여났습니다. 내가 력사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것은 어린시절 맏누이가 푼전을 아껴가며 력사유물들을 수집하는것을 본 다음부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그때 그에게 있어서 누이의 행동은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어느날 그는 누이에게 물었다.

《누님은 어째서 력사유물을 그렇게 많이 수집합니까?》

매부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누이는 그의 물음에 웃음만 지었다.

어린 재천이가 누이와 매부의 심정을 알게 된것은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귀국의 길이 열리자 조국의 품에 안긴 그는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가 될것을 결심하고 평양의학대학(당시)에 입학하였다.

사실 그는 귀국하여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하였었다.

어느날 대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그는 돈 한푼 받지 않고 치료해주는 놀라운 현실에 접하게 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은 그를 미술이 아니라 의학을 전공하게 하였던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로 배치되여 그때까지도 어려운 분야의 하나였던 혈관조영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나날에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것은 일본에 있을 때 력사유물을 수집하여 조국에 기증하던 누이와 매부의 모습이였다.

그는 누이와 매부를 생각하면서 짬짬이 유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주체78(1989)년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 누이와 매부앞에 재천은 자기가 수집한 유물들을 내놓았다.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던 누이가 입을 열었다.

《재천아, 나나 매부가 한갖 취미로 유물들을 수집하였다고만 생각지 말아. 매개 민족에게는 자기의 문화와 재부, 풍습이 있다. 민족의 력사유물은 조국의 재부로 있어야 빛이 나는 법이다.》

누이의 말은 재천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력사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수집한 많은 국보급의 력사유물들을 모두 국가에 기증하였다.

조국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주체86(1997)년 4월 그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재천만이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살고있는 리경행부부와 무역성 부원으로 사업하고있는 김성 등 애국의 마음을 안은 많은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기의 진심을 바치는 이런 공민들이 있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가 더욱 빛나는것이 아니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영일

전시된 유물들의 일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위하여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사업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의 첫 시기부터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기 위해 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고 바람세찬 험한 길도 수없이 걸으시였다.

해방후 북과 남의 각당, 각파를 망라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소집되고 내외반동들의 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애국투쟁이 벌어진것도, 격페상태에 있던 북남관계에 돌파구가 열리고 7. 4공동성명이 채택되여 통일의 근본원칙이 마련된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의 빛나는 결실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수령님이시였기에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밤을 지새우시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두툼한 문건을 다 보아주시고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념원하신 조국통일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통일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고 조국통일의 담당자도 우리 민족이다. 나라의 통일은 누구나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구현해나가는 길에 민족의 자주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것을 온 겨레는 6. 15통일시대를 통하여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장장 반세기에 걸쳐 조국통일위업을 령도해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집대성되여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여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튼튼한 초석을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통일애국의 한대오에서 손잡고 나아가시려는 의지와 덕망을 안으시고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분렬의 력사를 밀어내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6. 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참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립과 민족대단결5대방침,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채택은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로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실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진정으로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삼천리강토우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데 자주통일위업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본사기자 한신애

조선반도의 평화적발전을 위한 담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을 실현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적발전을 위한 담보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놓게 될것이다.

이것은 올해초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적극 지지하는 로씨야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의 한 구절이다. 벨라루씨, 이딸리아, 우크라이나, 나이제리아 등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도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지지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공식문건으로도 배포되였는데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는 물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거기에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오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대하면서 동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활짝 열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동족끼리 서로 비방중상하고 총부리를 내대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에 대해 기대할수 없고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론할수 없다.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충실하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6. 15통일시대의 나날 북과 남은 허심탄회하게 현안문제들을 론하며 그 해결방도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 서로의 불신도 해소되였고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겠다는 자각도 굳어졌다.

이러한 6. 15통일시대의 북남관계를 《일방적으로 북에 끌려다닌 관계》로 생각하는것은 큰 잘못이다. 서로가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손잡고 노력한것을 《끌려다닌 관계》로 묘사할수는 없다.

자기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은 관계개선의 장애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은 결코 그 어느 일방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모두의 리익을 위한 애국의 립장이다. 북남관계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착잡하게 얽혀져있다 해도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서로 마주앉아 흉금을 터놓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해나갈 의지만 있다면 풀지 못할 난문제란 있을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할것을 주장하는것은 그 어떤 《위장평화공세》도, 《대남선전공세》도 아니다.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제안은 북남사이의 대결로 민족의 인적, 물적자원이 소모되고있고 외세의 침략책동으로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엄혹한 현실의 반영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현시기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철저한 구현에 북남관계개선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도 있다. 온 민족을 참화속에 몰아넣을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 쉴새없이 벌어지는 속에서 접촉과 대화의 평화적환경이 마련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공화국의 제안은 민족의 안전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애국애족의 제안이다.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재난을 당할것은 우리 민족이고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뿐이라는것은 나라가 분렬되여 근 70년을 살아오면서 새겨안은 피의 교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적대세력을 반대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재침의 꿈을 현실로

지금 일본은 재침에 환장이 되여 분별을 잃고 있다.

지난 1월 일본수상 아베는 년두소감이라는데서 《강한 일본》을 되찾는 싸움은 이제부터라느니, 시대의 변화를 포착한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적인 론의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베가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소리를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집권한 직후부터 그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를 소리높이 보급해야 하며 이것이 《강한 일본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떠들어댔다. 이렇게 놓고볼 때 아베가 부르짖는 《강한 일본》이라는것이 군국주의일본을 재현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어느 시기의 정권이라 할것없이 모두 재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

이른바 《자위》의 미명아래 얼마 안되는 무력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현시기 병력수나 군사장비수준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도로 된 사실이 그것을 립증해준다.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륙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륙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고 밝혔다. 오늘의 일본《자위대》는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공격형의 침략무력, 정규화된 재침무력으로 변모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은 주변나라들의 그 무슨 《위협》론을 떠들면서 군국화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해말 새로 채택한 《3개의 안보화살》이라고 불리우는 문건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이 앞으로 륙해공《자위대》의 《방어력과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방위계획대강》, 10여년만에 방위예산을 대폭 늘이는것과 함께 이 예산에서 륙상《자위대》의 섬탈환임무를 책임진 《수륙기동단》을 내오며 새로운 무기를 구입할것을 쪼아박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새로운 무기수출원칙을 제정할것이라고 제창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즉 《3개의 안보화살》에는 저들의 군국화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일본특유의 교활성이 깔려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야금야금 추진시켜온 일본은 몇년전에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자위대》기본임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자위대》는 전투지역을 비롯한 해외 여러 지역에 파견되여 군사작전경험을 쌓았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일본당국은 헌법개정을 집요하게 떠들고있는것이다.

1947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일본의 현행헌법 제9조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륙, 해, 공군의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혀져있다.

그러나 해외침략야망에 들뜬 현 집권세력은 이러한 《평화헌법》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고 전쟁헌법을 조장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고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고있다.

일본지배층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자위대》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을 고도로 높이기 위한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첨단화, 우주군사화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 걸쳐 군국화를 다그치면서 헌법개정에 매여달리는것은 그들의 재침야망이 추상적인 꿈이 아니라 현실이며 국시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더우기 문제시되는것은 현 집권세력이 무력개편안에서 우리 나라를 《위협》대상으로 규정한것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재침선언이나 같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아시아재침에서 첫번째 타격대상으로 삼고있다.

허나 일본당국은 부질없는 망상을 하고있다. 장래생각을 하지 않는자 불행한 날을 면할수 없다는 일본속담을 스스로 자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본사기자

유 적

심 원 사

심원사는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 자비산중턱에 있는 사찰이다.

중심건물인 보광전과 그앞에 청풍루가 있고 청풍루 량옆에 료사(중들이 거처하는 집)가 한채씩 배치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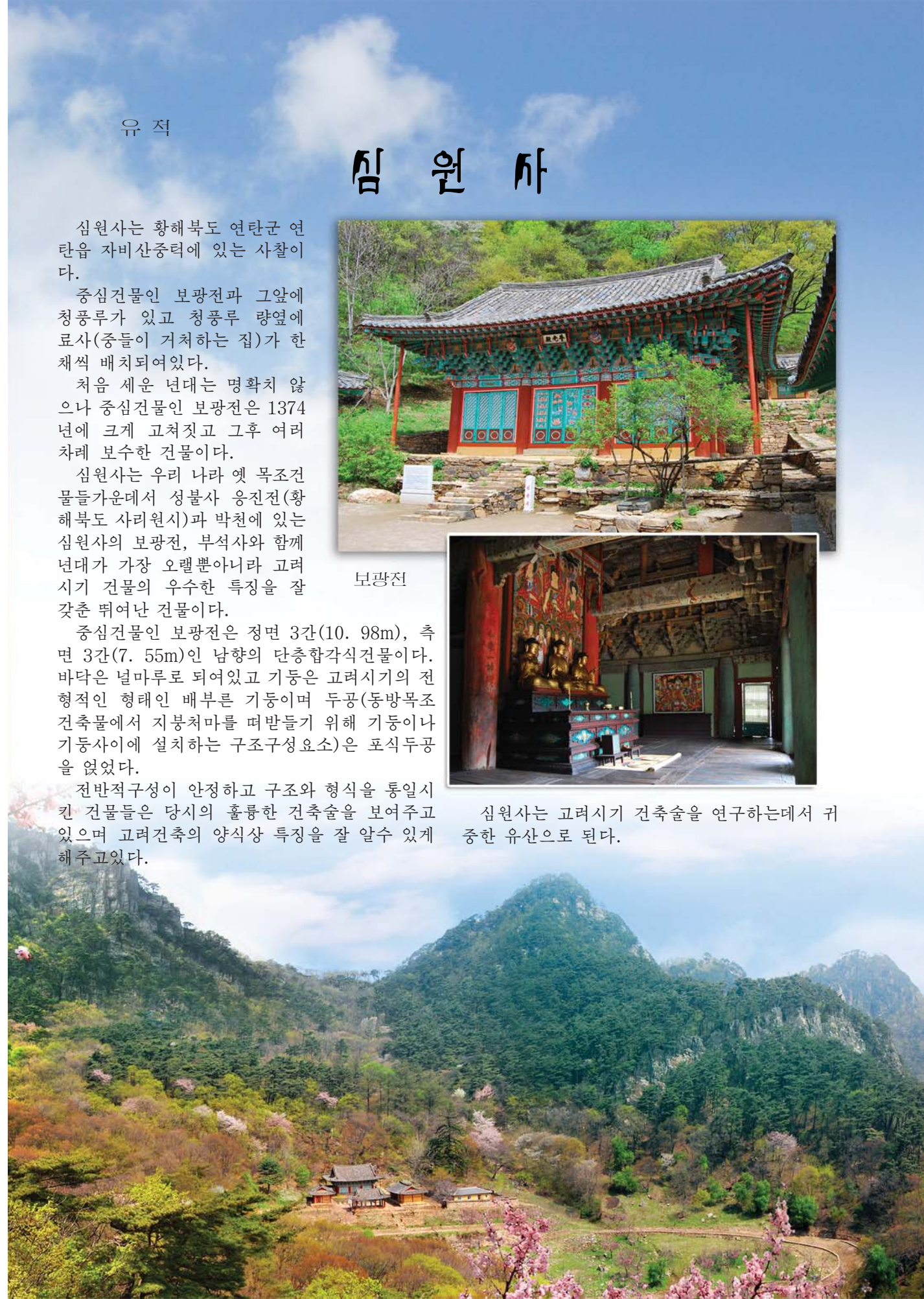
처음 세운 년대는 명확치 않으나 중심건물인 보광전은 1374년에 크게 고쳐짓고 그후 여러차례 보수한 건물이다.

심원사는 우리 나라 옛 목조건물들가운데서 성불사 응진전(황해북도 사리원시)과 박천에 있는 심원사의 보광전, 부석사와 함께 년대가 가장 오랠뿐아니라 고려시기 건물의 우수한 특징을 잘 갖춘 뛰여난 건물이다.

보광전

중심건물인 보광전은 정면 3간(10. 98m), 측면 3간(7. 55m)인 남향의 단층합각식건물이다. 바닥은 널마루로 되여있고 기둥은 고려시기의 전형적인 형태인 배부른 기둥이며 두공(동방목조건축물에서 지붕처마를 떠받들기 위해 기둥이나 기둥사이에 설치하는 구조구성요소)은 포식두공을 얹었다.

전반적구성이 안정하고 구조와 형식을 통일시킨 건물들은 당시의 훌륭한 건축술을 보여주고있으며 고려건축의 양식상 특징을 잘 알수 있게 해주고있다.

심원사는 고려시기 건축술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을밀대의 봄　　본사기자 최원철

모란봉에 봄이 왔다.

살구꽃, 진달래가 활짝 핀 모란봉의 경치가운데서도 평양8경의 하나인 을밀대의 경치가 류달리 아름답다. 《을밀대의 봄맞이》로 일러오는 을밀대의 봄풍경에 이끌려 찾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환희롭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 482130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